

2014년 6월 고용동향과 시사점

남재량(한국노동연구원 노동시장분석센터 소장)

정성미(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배기준(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정재우(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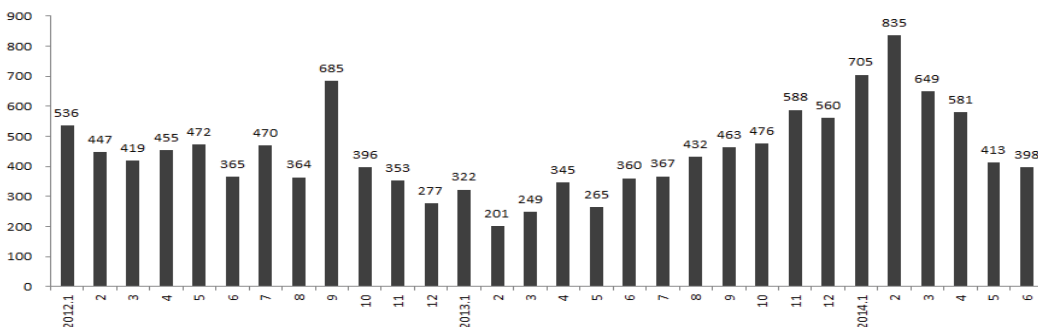
1 2014년 6월 고용동향

◎ 취업자 수 : 2013년 6월 대비 398천 명 증가

- 5월 증가폭이 크게 둔화한 이후 둔화 추세를 이어감
- 각 연도 6월을 비교했을 때, 2014년 6월 취업자 증감이 적은 수는 아님
- 1~6월 평균 597천 명 증가

[그림 1]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1〉 주요 고용지표 추이

(단위 : 천 명, %, 전년동기대비)

		2011	2012	2013	2012 6	2013. 6	2014. 6
15 세 이 상	생산가능인구 (증가율)	41,052 (1.1)	41,582 (1.3)	42,096 (1.2)	41,561 (1.3)	42,098 (1.3)	42,490 (0.9)
	경제활동인구 (증가율)	25,099 (1.4)	25,501 (1.6)	25,873 (1.5)	25,939 (1.4)	26,291 (1.4)	26,825 (2.0)
	취업자 (증가율)	24,244 (1.7)	24,681 (1.8)	25,066 (1.6)	25,117 (1.5)	25,478 (1.4)	25,875 (1.6)
	(증가수)	(415)	(436)	(386)	(365)	(360)	(398)
	(남성)	(238)	(234)	(186)	(207)	(194)	(195)
	(여성)	(177)	(203)	(200)	(158)	(166)	(203)
	참가율	61.1	61.3	61.5	62.4	62.5	63.1
	(남성)	(73.1)	(73.3)	(73.2)	(74.1)	(74.0)	(74.4)
	(여성)	(49.7)	(49.9)	(50.2)	(51.3)	(51.4)	(52.3)
	고용률	59.1	59.4	59.5	60.4	60.5	60.9
	(남성)	(70.5)	(70.8)	(70.8)	(71.6)	(71.6)	(71.8)
	(여성)	(48.1)	(48.4)	(48.8)	(49.8)	(49.9)	(50.4)
	실업자	855	820	807	822	813	949
실업률	3.4	3.2	3.1	3.2	3.1	3.5	
(남성)	(3.6)	(3.4)	(3.3)	(3.4)	(3.3)	(3.5)	
(여성)	(3.1)	(3.0)	(2.9)	(2.9)	(2.8)	(3.6)	
비경활 (증가율)	15,953 (0.7)	16,081 (0.8)	16,223 (0.9)	15,622 (1.2)	15,807 (1.2)	15,666 (-0.9)	
15 ~ 64 세	참가율	66.2	66.4	66.6	67.3	67.3	68.2
	(남성)	(77.4)	(77.6)	(77.6)	(78.2)	(78.1)	(78.8)
	(여성)	(54.9)	(55.2)	(55.6)	(56.2)	(56.4)	(57.7)
	고용률	63.8	64.2	64.4	65.0	65.1	65.7
(남성)	(74.5)	(74.9)	(74.9)	(75.5)	(75.4)	(75.9)	
(여성)	(53.1)	(53.5)	(53.9)	(54.5)	(54.7)	(5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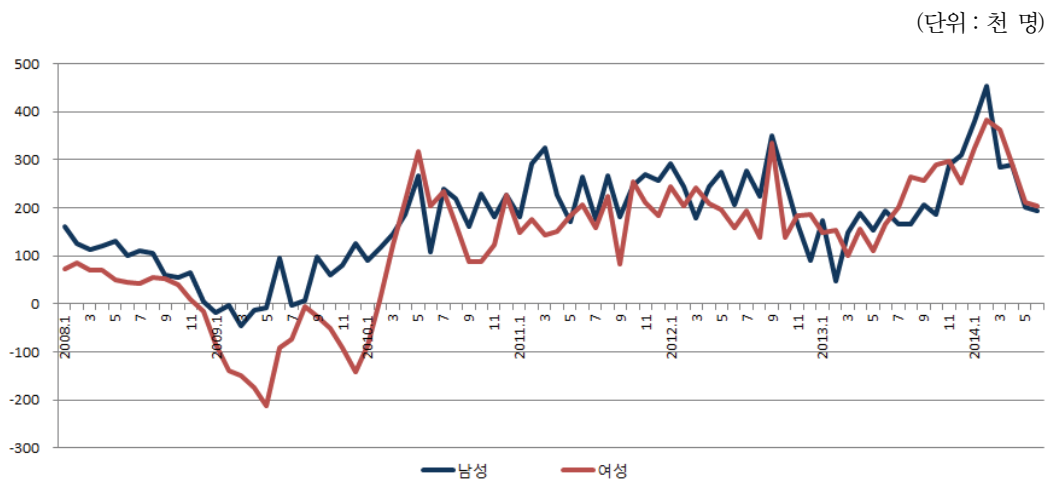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고용률 : 2013년 6월 대비 0.4%p 상승

- 15~64세 고용률은 0.6%p 상승

- ◎ 실업자 수 및 실업률 : 2013년 6월 대비 13만 6천 명 증가, 실업률도 0.4%p 상승
- 실업률 상승폭 둔화

[그림 2] 성별 취업자 수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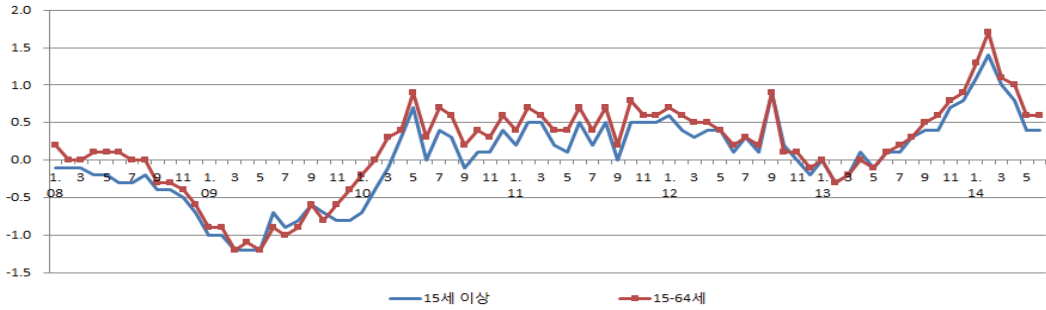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 고용률 증감을 전년동월대비로 볼 때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년 2월을 정점으로 이후 꾸준히 상승 추세였다가 3월부터 증가폭 둔화
- ◎ 비경제활동인구 : 2013년 6월 대비 14만 1천 명 감소(증가율 -0.9%)
- ◎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은 2013년 3월 2.5%를 정점으로 증가폭이 줄어 2014년 6월에는 -0.9% 기록(그림 4, 5)
- ◎ 이와 같은 취업자 변동은 민간부문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그림 6)
- 공공부문 취업자 수 6월 24천 명 감소, 민간부문 취업자 수 6월 421천 명 증가

[그림 3] 전년동월대비 고용률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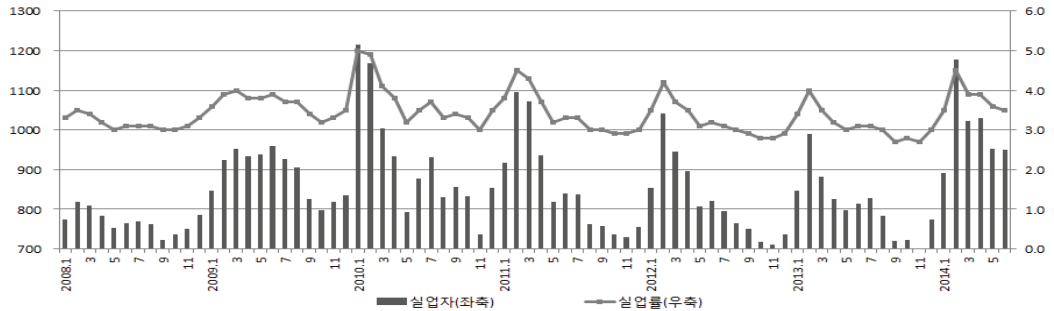
(단위: %p)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4] 실업자, 실업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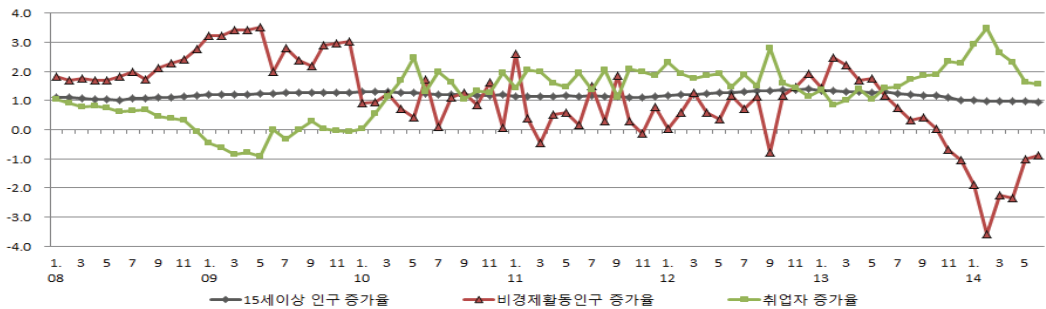
(단위: 천 명, %,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5] 15세 이상 인구 증가율, 취업자 증가율,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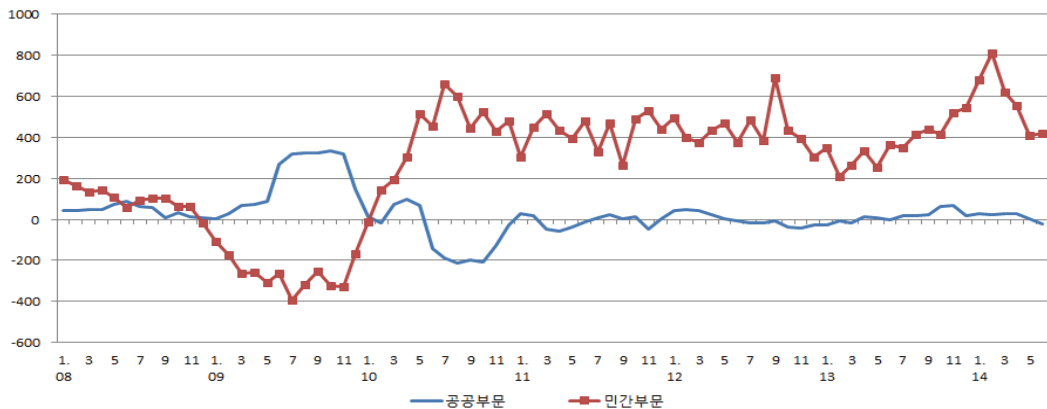
(단위: 천 명, %,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6] 부문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입직과 이직 흐름을 분석해 보면, 입직은 2013년 하반기 이후 상승 추이를 유지해오다가, 2014년 4월 이후 연속으로 큰 감소폭을 유지(4월 88천 명 감소 → 5월 234천 명 감소 → 6월 153 감소)

- 2014년 6월 입직감소는 특히 제조업 56천 명 ↓, 도·소매업 38천 명 ↓, 교육서비스업 29천 명 ↓ 영향
- 전년동월과 비교할 때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경영 악화로 인해 2만 7천 명이 줄어 경기회복으로 인한 비자발적 이직자 감소 영향을 확인할 수 있지만, 자발적 이직사유 중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개인 및 가족 이유로 인한 이직도 12만 5천 명이나 줄어들음
-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취업월과 이직월 정보를 제공하므로, 이를 이용해 계산
- 입직자 수는 3개월 미만 근속한 사람의 수, 이직자 수는 3개월 미만 이직자 수임

〈표 2〉 각 연도 6월 근속기간별 임금근로자 수 및 전년동기대비 증감

(단위: 천 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0 증감	2011 증감	2012 증감	2013 증감	2014 증감
3개월 미만	2,876	2,892	2,767	2,746	2,593	-197	17	-126	-21	-153
1년 미만	3,937	3,784	3,788	3,705	3,699	403	-153	4	-83	-6
1~3년 미만	3,359	3,519	3,654	3,681	3,907	57	159	135	27	226
3년 이상	7,021	7,525	7,723	8,297	8,660	194	504	198	574	362
전 체	17,193	17,720	17,932	18,429	18,859	457	527	212	497	43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2-1〉 각 연도 1~6월 평균 근속기간별 임금근로자 수 및 전년동기대비 증감

(단위: 천 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0 증감	2011 증감	2012 증감	2013 증감	2014 증감
3개월 미만	2,966	2,912	2,849	2,757	2,729	144	-54	-63	-92	-28
1년 미만	3,515	3,512	3,506	3,387	3,454	143	-3	-6	-119	67
1~3년 미만	3,335	3,445	3,582	3,654	3,755	30	110	137	72	101
3년 이상	6,957	7,374	7,626	8,165	8,623	180	418	252	539	458
전 체	16,773	17,243	17,563	17,963	18,561	497	470	320	400	59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3〉 각 연도 6월 3개월 미만 이직자의 이직사유별 추이 및 전년동기대비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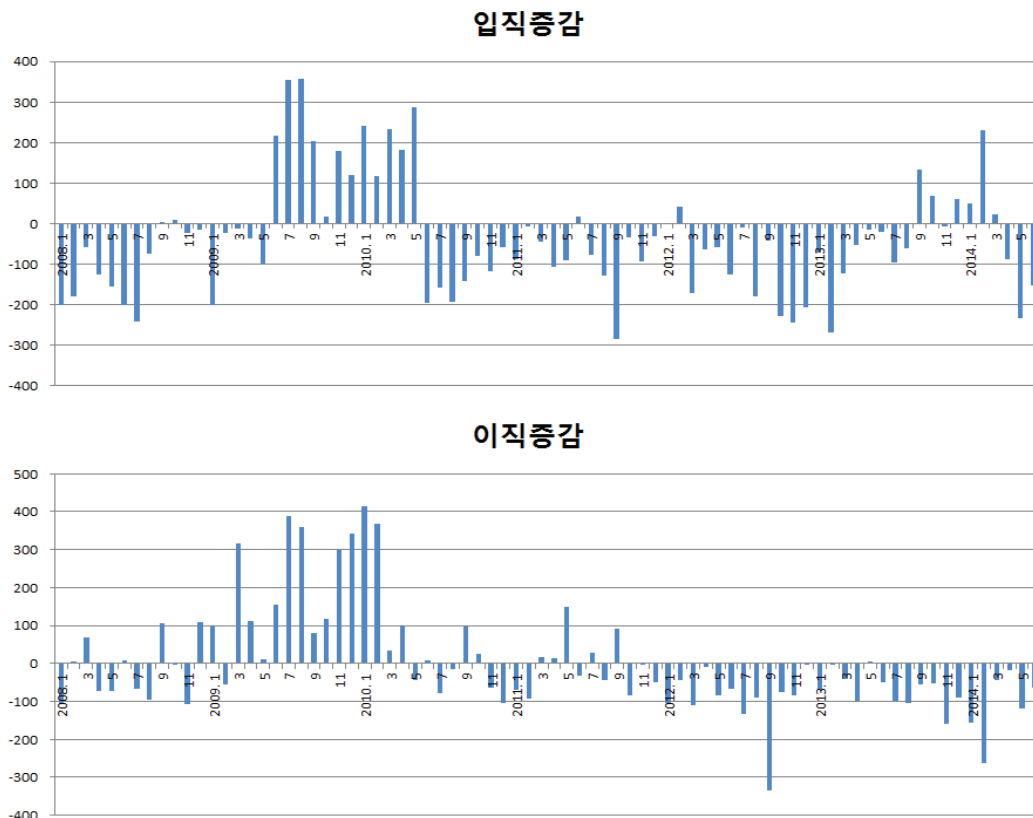
(단위: 천 명)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3 증감	2014 증감
개인, 가족관련 이유	499	526	497	491	488	362	-4	-125
육아	27	24	40	23	32	44	10	11
가사	26	37	33	30	19	26	-11	7
심신장애	14	11	8	7	10	15	3	5
정년퇴직, 연로	19	17	25	10	22	22	12	0
작업여건(시간, 보수 등) 불만족	189	199	200	203	180	199	-23	19
직장의 휴업, 폐업	50	34	34	36	28	32	-8	4
명예, 조기퇴직, 정리해고	58	36	40	37	32	38	-6	6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	135	170	154	153	143	162	-10	19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경영 악화	225	185	180	163	147	121	-16	-27
기타	17	29	25	16	20	36	5	15
전 체	1,259	1,267	1,235	1,169	1,120	1,056	-48	-6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7] 입·이직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주: 입직은 임금근로자의 근속기간 3개월 미만자 수, 이직은 이직한 지 3개월 미만인 미취업자 수이며, 전년동월대비 증감수를 그린 것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2013년 10월 입직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7천 명 증가 전환된 이후 11월 80천 명 ↑, 12월 62천 명 ↑, 2014년 1월 63천 명 ↑, 2월 98천 명 ↑, 3월 78천 명 ↑, 4월 79천 명 ↑ 증가하였다가 5월 40천 명 감소로 전환

※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2013년 11월 입직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106천 명 증가 전환된 이후 12월 76천 명 ↑, 2014년 1월 70천 명 ↑, 2월 74천 명 ↑, 3월 84천 명 ↑, 4월 91천 명 ↑ 5월 7천 명 ↑ 증가폭 둔화

2 2014년 6월 고용동향의 부문별 특징

1. 고령층의 고용증가 주도 및 청년층 취업자 수 증가

- ◎ 2014년 6월 취업자 수 증가는 50세 이상 고령층의 취업자 수 증가에 더불어 15~29세 청년층 취업자 수 증가(42천 명 ↑) 영향
 - 6월에 25~29세 청년층 취업자 수는 30천 명 감소
 - 50세 이상 고령층의 취업자 수는 368천 명(181천 명+187천 명) 증가

〈표 4〉 연령계층별 취업자 수 증감(전년 및 전년동월대비)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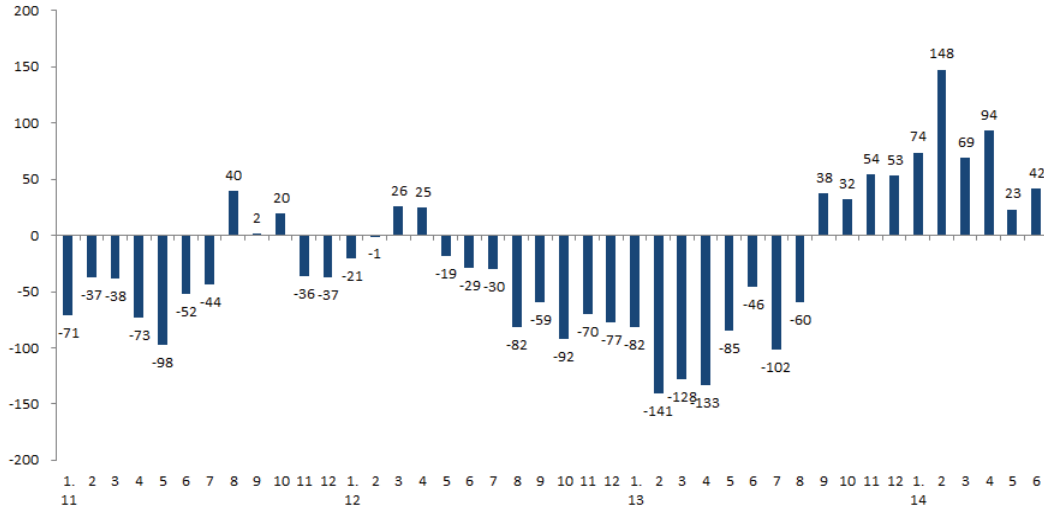
	전년 및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감						취업자 수	생산가능인구 증감		
	2011	2012	2013	2012. 6	2013. 6	2014. 6		2014. 6	2012. 6	2013. 6
전 체	416	437	386	365	360	398	25,875	529	536	393
15~29세	-35	-36	-50	-29	-46	42	3,864	-101	63	-57
15~19세	22	4	-7	5	-11	31	235	-52	-30	-77
20대	-58	-40	-44	-34	-35	10	3,629	-49	94	20
20~24세	-11	89	29	104	44	40	1,357	128	173	73
25~29세	-47	-129	-73	-138	-80	-30	2,272	-177	-80	-53
30대	-47	-31	-21	-70	-23	-25	5,736	-116	-57	-119
30~34세	44	79	57	37	86	13	2,928	38	65	-49
35~39세	-91	-110	-78	-107	-109	-38	2,808	-154	-123	-69
40대	57	11	22	-4	10	13	6,710	14	34	-19
50대	291	270	254	246	269	181	5,882	314	263	209
60세 이상	149	222	181	222	151	187	3,684	419	233	37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 전년동월대비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 10개월 연속 증가
 - 취업자 수 증가에 따라 15~29세 청년층 고용률도 전년동월대비 0.7%p 상승(2013년 6월 40.0% → 2014년 6월 40.7%)

[그림 8] 전년동월대비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경제활동의 증추라 할 수 있는 40대 취업자 수는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13천 명 증가

◎ 성별 고용률 남성 0.2%p, 여성 0.5%p 상승

- 연령별 고용률 중 20대만 감소했는데, 이는 남성의 20대 고용률 부진이 원인
- 남성 35~39세 고용률이 크게 감소(0.6%p↓)
- 여성은 40대(0.4%p↓)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고용률 증가

〈표 5〉 연령계층별 고용률 추이

(단위: %)

		2011	2012	2013	2012. 6	2013. 6	2014. 6	2014 증감
전체	전체	59.1	59.4	59.5	60.4	60.5	60.9	0.4
	15~29세	40.5	40.4	39.7	40.7	40.0	40.7	0.7
	15~19세	6.8	7.0	6.9	6.5	6.2	7.3	1.1
	20대	58.5	58.1	56.8	59.0	57.6	57.5	-0.1
	20~24세	43.5	44.5	43.2	45.6	44.4	44.7	0.3
	25~29세	69.7	69.2	68.8	70.0	69.3	69.5	0.2
	30대	72.2	72.7	73.2	73.2	73.4	74.2	0.8
	30~34세	71.0	72.2	72.9	72.2	73.1	74.4	1.3
	35~39세	73.3	73.2	73.5	74.1	73.7	74.0	0.3
	40대	78.4	78.3	78.4	79.2	79.0	79.3	0.3
	50대	71.6	72.2	73.1	73.4	74.4	74.7	0.3
60세 이상	36.5	37.5	38.4	40.2	40.9	41.3	0.4	
남성	전체	70.5	70.8	70.8	71.6	71.6	71.8	0.2
	15~29세	38.8	38.7	38.1	38.9	38.2	38.3	0.1
	15~19세	5.5	5.7	5.9	5.5	5.5	6.1	0.6
	20대	58.3	57.3	55.7	57.9	56.1	55.3	-0.8
	20~24세	37.2	39.1	38.2	39.1	38.9	38.0	-0.9
	25~29세	71.6	70.4	69.6	71.3	69.8	69.6	-0.2
	30대	89.8	90.3	90.2	90.4	90.7	91.1	0.4
	30~34세	87.9	89.0	88.4	88.9	88.9	90.3	1.4
	35~39세	91.6	91.7	92.1	92.0	92.6	92.0	-0.6
	40대	91.6	91.7	92.0	92.2	92.0	93.1	1.1
	50대	85.4	86.3	86.7	87.5	88.0	88.2	0.2
60세 이상	49.3	49.9	51.0	52.3	53.2	53.3	0.1	
여성	전체	48.1	48.4	48.8	49.8	49.9	50.4	0.5
	15~29세	42.1	42.1	41.3	42.5	41.7	43.0	1.3
	15~19세	8.1	8.3	7.9	7.5	7.0	8.6	1.6
	20대	58.7	58.8	57.8	60.0	58.9	59.7	0.8
	20~24세	48.2	48.9	47.5	50.9	49.1	50.5	1.4
	25~29세	67.8	68.0	68.0	68.5	68.7	69.3	0.6
	30대	53.7	54.5	55.5	55.2	55.5	56.7	1.2
	30~34세	53.2	54.8	56.7	54.8	56.8	57.8	1.0
	35~39세	54.1	54.1	54.4	55.7	54.2	55.6	1.4
	40대	64.9	64.6	64.6	65.8	65.6	65.2	-0.4
	50대	57.7	58.1	59.5	59.3	60.8	61.2	0.4
60세 이상	26.6	27.9	28.6	30.9	31.4	31.9	0.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 20대도 경기회복으로 인해 고용률 하락 흐름에서 벗어나고 있는 상태였지만, 이번 달 20대 남성은 20~24세, 25~29세 모두 고용률이 감소한 반면, 여성은 20~24세 고용률이 크게 증가
 - [그림 9] 고용률 증감 추이를 보면, 청년층 고용률은 2013년 초를 저점으로 그 이후 상승 추세에 있었음
 - 여성 20~24세는 올해 5월 고용률이 크게 증가해 전년동월대비 1.4%p 증가하였지만, 25~29세의 경우 고용률 증가 추세가 크게 둔화함
- ◎ 20~24세 고용률 하락은 재학생 고용률 하락(아르바이트 ↓)에 기인한 것으로 졸업생 고용률은 0.9%p 상승함
 - 졸업생 고용률은 세월호 영향이 없었던 1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4.4%p 상승했으나 5월 이후 둔화되는 추세
 - 근속기간별로 보면, 3개월 미만에서 주로 줄어들어 입직 둔화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추측됨

〈표 6〉 20~24세 재학 여부별 고용률과 근속기간별 임금근로자 수

(단위: %, 천 명)

	재학생 고용률	졸업생 고용률	근속기간별			
			3개월 미만	3개월~1년 미만	1~3년 미만	3년 이상
2011. 6	29.4	67.4	328	450	255	61
2012. 6	31.0	67.0	350	534	267	49
2013. 6	29.0	68.0	387	512	296	48
2014. 6	28.6	69.1	352	521	364	4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 25~29세 남성 고용률 하락은 4개월째 지속되고 있음
 - 남성 고용률이 하락하긴 했지만, 비경제활동인구 비중도 크게 줄고 대신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 비중이 증가해 경기 기대감에 따른 구직활동 증가와 더 나은 일자리를 향한 이동이 취업률의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임
 - ※ 이 연령대 남성 고용률의 장기 추세를 감안할 때 향후 고용률 개선을 기대하기 쉽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함

- 여성 25~29세 고용률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취업률, 실업률 모두 증가함

〈표 7〉 25~29세 성별 취업, 실업, 미취업자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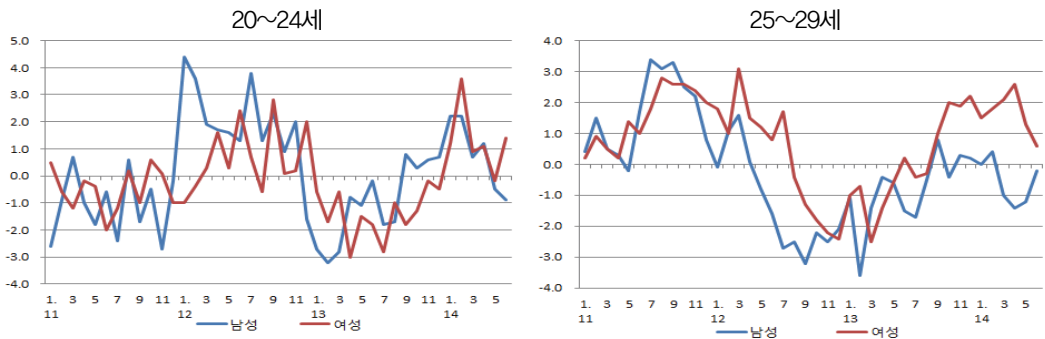
(단위: %)

	연도	남성				여성			
		취업	실업	비경활	전체	취업	실업	비경활	전체
1~6월 평균	2007	71.6	6.4	22.0	100.0	65.1	2.8	32.1	100.0
	2008	70.6	6.0	23.4	100.0	66.0	3.0	31.0	100.0
	2009	70.0	7.0	23.0	100.0	65.6	3.6	30.8	100.0
	2010	70.3	6.8	22.9	100.0	66.2	3.7	30.0	100.0
	2011	71.0	6.8	22.2	100.0	66.9	3.9	29.1	100.0
	2012	71.0	6.8	22.2	100.0	68.5	3.7	27.8	100.0
	2013	69.6	6.7	23.7	100.0	67.5	3.6	28.9	100.0
	2014	69.0	8.3	22.7	100.0	69.1	4.7	26.1	100.0
6월	2007	72.2	6.2	21.6	100.0	65.1	3.3	31.6	100.0
	2008	71.5	5.6	22.9	100.0	66.4	3.0	30.7	100.0
	2009	71.5	6.8	21.7	100.0	65.5	3.7	30.8	100.0
	2010	71.2	6.5	22.3	100.0	66.7	2.9	30.5	100.0
	2011	72.9	5.0	22.1	100.0	67.7	4.1	28.2	100.0
	2012	71.3	5.8	22.8	100.0	68.5	4.1	27.3	100.0
	2013	69.8	7.2	23.0	100.0	68.7	3.4	27.8	100.0
	2014	69.6	7.9	22.4	100.0	69.3	5.4	25.3	10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9] 전년동월대비 고용률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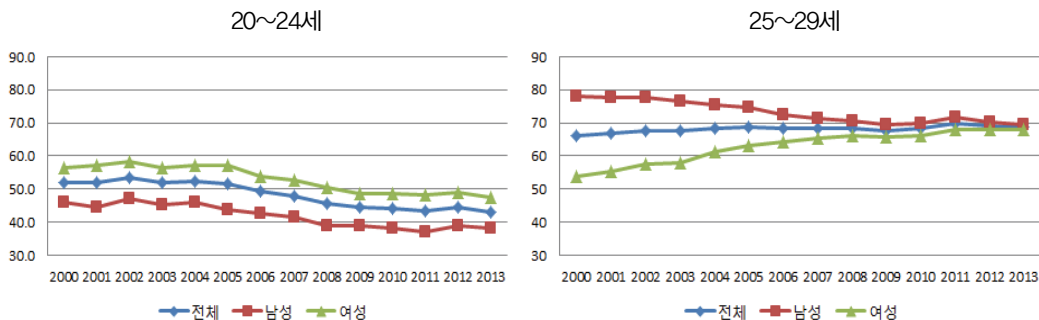
(단위: %p)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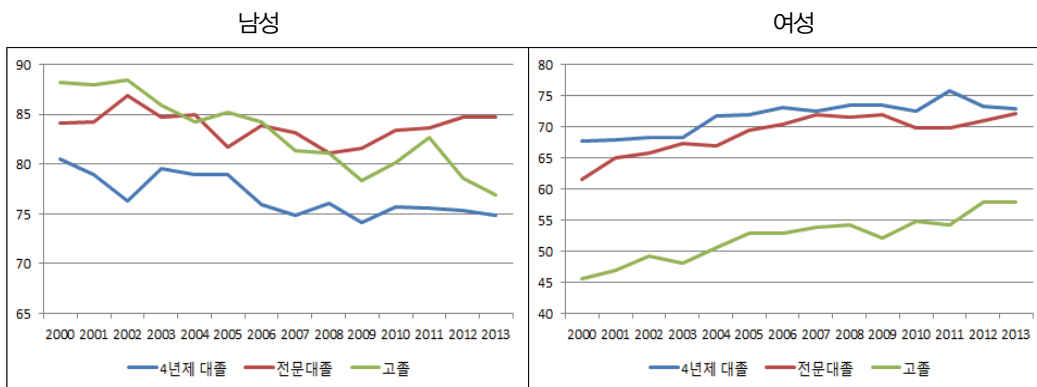
[그림 10] 연령별, 성별 20대 고용률 장기 추이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11] 각급학교 졸업자 고용률 추이(25~29세)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2. 상용직 중심의 취업자 수 증가

- ◎ 취업자 수 증가는 상용직 및 임시직 등 임금근로자의 증가가 주요 요인
 - 임금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상용직 462천 명 증가 및 임시직 78천 명 증가에 따라 430천 명 증가
 - 비임금근로자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32천 명)는 증가하였으나,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39천 명), 무급가족종사자(25천 명)는 감소

〈표 8〉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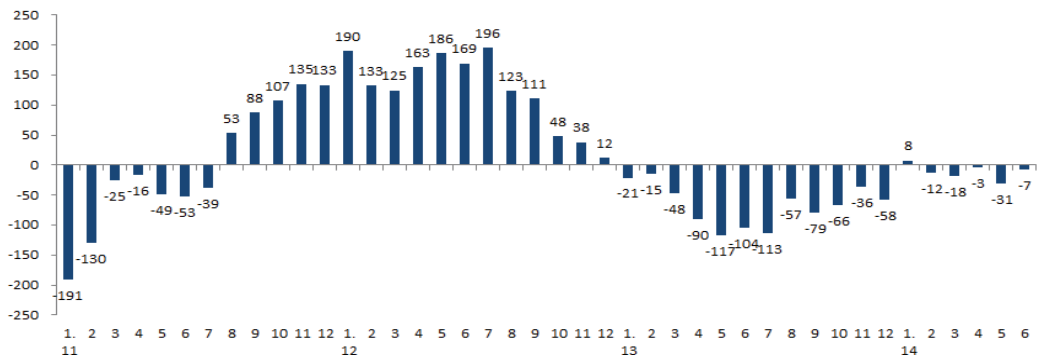
(단위: 천 명)

	2011	2012	2013	2012. 6	2013. 6	2014. 6
전 체	416	436	386	365	360	398
임금	427	315	483	212	497	430
상용직	575	436	615	441	593	462
임시직	-78	-2	-96	-38	-114	78
일용직	-70	-120	-37	-191	17	-110
비임금	-11	121	-97	153	-136	-32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6	43	-39	93	-57	32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5	81	-28	76	-48	-39
무급가족종사자	-12	-3	-30	-17	-32	-2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그림 12] 전년동월대비 자영업자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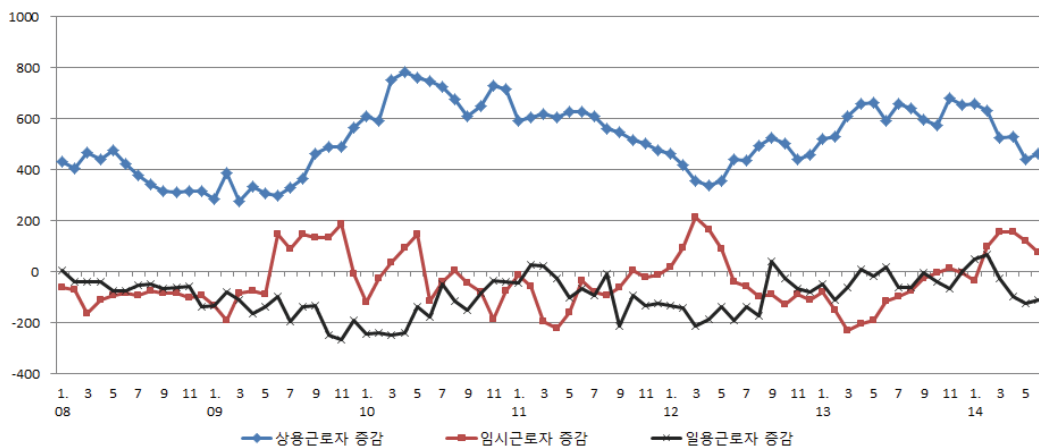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 전년동월대비로 보면, 임금근로자의 증가폭은 2014년 2월 803천 명 증가로 정점을 찍고 다소 증가폭이 둔화되는 중
- 임금근로자 증가폭은 2013년 11월 631천 명↑, 12월 651천 명↑, 2014년 1월 675천 명↑, 2월 803천 명↑, 3월 654천 명↑, 4월 589천 명↑, 5월 437천 명↑, 6월 430천 명↑
 - 상용직은 2013년 3월부터 60만 명대 증가로 증가폭이 확대된 기저효과 영향으로 증가폭이 다소 둔화되어 왔으나 6월 증가폭이 소폭 증가해 전년동월대비 462천 명 증가
 - 2013년 3월 이후 임시+일용직도 꾸준히 감소폭이 둔화되어 왔으나 2014년 2월 이후 추세를 달리함
 - 임시근로자는 2014년 2월 플러스(+)로 전환된 후 2월 99천 명↑, 3월 157천 명↑, 4월 154천 명↑, 5월 121천 명↑, 6월 78천 명↑ 그러나 기저효과의 영향이 반영
 - 반면, 일용근로자는 2014년 3월 이후 마이너스(-)로 전환된 후 3월 27천 명↓, 4월 97천 명↓, 5월 125천 명↓, 6월 110천 명↓

[그림 13] 임금근로자 전년동월대비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 ◎ 연령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상용직 증가는 50대(225천 명 ↑), 40대(134천 명 ↑)가 주도
 - 임시직 증가는 60세 이상(89천 명 ↑)과 50대(17천 명 ↑)에서 주도
 - 일용직 감소는 50대(51천 명 ↓), 15~24세(36천 명 ↓), 30대(27천 명 ↓)에서 주도
 - 25~29세는 상용직 소폭 증가(1천 명 ↑), 임시직 감소(36천 명 ↓)
 - ※ 25~29세 고용원 없는 자영자는 2013년 10월 이래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6월에는 증가폭이 둔화된 상태
 - ※ 30대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5개월째 증가하고 있음. 2014년 1~6월 평균 기준 14천 명 증가했고, 6월에도 26천 명 증가. 대부분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이 주도
 - ※ 남성 40대 상용직 42천 명 ↑(제조업 68천 명 ↑, 공공행정 31천 명 ↓), 여성 40대 상용직 93천 명 ↑(제조업 13천 명 ↑, 보건 및 사회복지업 26천 명 ↑)

〈표 9〉 종사상 지위별, 연령별 취업자 수 전년대비 및 전년동기대비 증감

(단위: 천 명)

		전년대비 증감			전년동월대비 증감		
		2011	2012	2013	2012. 6	2013. 6	2014. 6
15~24세	상용직	0	56	39	71	35	80
	임시직	26	39	-15	54	-8	22
	일용직	-1	2	-1	-3	7	-36
	고용원 있는 자영자	2	0	0	3	-3	3
	고용원 없는 자영자	-16	1	-7	-7	-7	2
	무급가족종사자	0	-5	7	-9	10	0
25~29세	상용직	20	-69	-26	-97	-40	1
	임시직	-57	-47	-37	-38	-26	-36
	일용직	-15	-10	3	-21	11	8
	고용원 있는 자영자	7	1	-11	4	-11	-8
	고용원 없는 자영자	1	-6	0	5	-7	3
	무급가족종사자	-3	2	-1	9	-6	2
30~39세	상용직	155	90	145	64	168	-25
	임시직	-90	-86	-113	-76	-144	16
	일용직	-24	-38	-25	-65	-5	-27
	고용원 있는 자영자	-11	-10	-12	-2	-24	26
	고용원 없는 자영자	-74	20	-7	27	-9	-8
	무급가족종사자	-3	-7	-8	-19	-9	-7
40~49세	상용직	221	141	190	140	184	135
	임시직	-37	-39	-28	-54	-36	-29
	일용직	-53	-64	-40	-73	-48	-12
	고용원 있는 자영자	-25	5	-29	26	-37	8
	고용원 없는 자영자	-20	-21	-53	-32	-44	-56
	무급가족종사자	-28	-11	-18	-10	-10	-32
50~59세	상용직	141	182	206	222	183	225
	임시직	67	54	17	17	25	17
	일용직	-4	-15	23	-33	50	-51
	고용원 있는 자영자	19	22	10	32	14	-1
	고용원 없는 자영자	56	36	-5	15	-3	-19
	무급가족종사자	11	-9	2	-8	0	10
60세 이상	상용직	38	37	61	39	64	47
	임시직	13	77	81	59	76	89
	일용직	27	5	3	4	3	7
	고용원 있는 자영자	15	26	3	31	4	5
	고용원 없는 자영자	47	51	44	69	23	38
	무급가족종사자	10	26	-11	20	-18	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전년동월대비 업종별 상용직 증감을 보면, 제조업(223천 명 ↑)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91천 명 ↑), 도매 및 소매업(64천 명 ↑)의 증가가 크게 나타남
 - 제조업 상용직 증가는 주로 남성(143천 명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용직 증가는 주로 여성(62천 명 ↑)에게 집중. 도매 및 소매업은 남성 33천 명 ↑, 여성 31천 명 ↑ 비슷하게 증가
 - 임시직은 숙박 및 음식점업(77천 명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53천 명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46천 명 ↑)에서 주로 증가

〈표 10〉 2014년 6월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업종별 증감

(단위 : 천 명, %)

	전년동월대비 상용직 증감	상용직수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비중	전년동월대비 임시직 증감	전년동월대비 일용직 증감
제조업	223	3,156	82.1	-30	-28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7	72	91.3	-1	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21	70	86.3	-6	0
건설업	17	589	41.7	14	-19
도매 및 소매업	64	1,178	52.8	18	-25
운수업	20	592	77.4	11	1
숙박 및 음식점업	24	256	20.2	77	-2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2	589	89.0	-7	-4
금융 및 보험업	-40	516	63.7	-9	2
부동산 및 임대업	14	198	56.3	20	-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2	790	90.4	-9	5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	736	66.3	-28	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	737	76.0	-28	5
교육서비스업	6	956	66.6	31	-3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91	1,235	75.1	46	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5	98	44.5	-10	-1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9	382	47.9	53	2
기타	18	62	20.1	-65	-23
전 체	462	12,212	64.8	78	-11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11) 각 연도 6월 근속기간별·학력별 상용직 근로자 수 및 전기대비 증감

(단위: 천 명)

		상용직 근로자 수				전기대비 증감			
		2011	2012	2013	2014	2011	2012	2013	2014
전체	3개월 미만	501	549	517	497	24	48	-32	-20
	1년 미만	1,598	1,665	1,669	1,709	86	67	5	40
	1~3년 미만	2,206	2,339	2,445	2,597	151	133	106	152
	3년 이상	6,412	6,605	7,119	7,409	366	193	514	290
	전 체	10,716	11,157	11,750	12,212	627	441	593	462
고졸 이하	3개월 미만	216	251	230	221	-14	35	-22	-9
	1년 미만	662	696	690	689	-13	34	-6	-1
	1~3년 미만	902	915	976	1,049	69	13	61	73
	3년 이상	2,471	2,521	2,668	2,770	97	50	147	102
	전 체	4,251	4,383	4,564	4,730	140	132	181	166
전문 대졸 이상	3개월 미만	285	297	287	276	38	12	-10	-11
	1년 미만	935	969	979	1,020	99	34	10	41
	1~3년 미만	1,304	1,423	1,469	1,548	81	120	46	79
	3년 이상	3,942	4,085	4,451	4,639	269	143	367	188
	전 체	6,465	6,774	7,186	7,482	487	309	412	29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3. 비임금근로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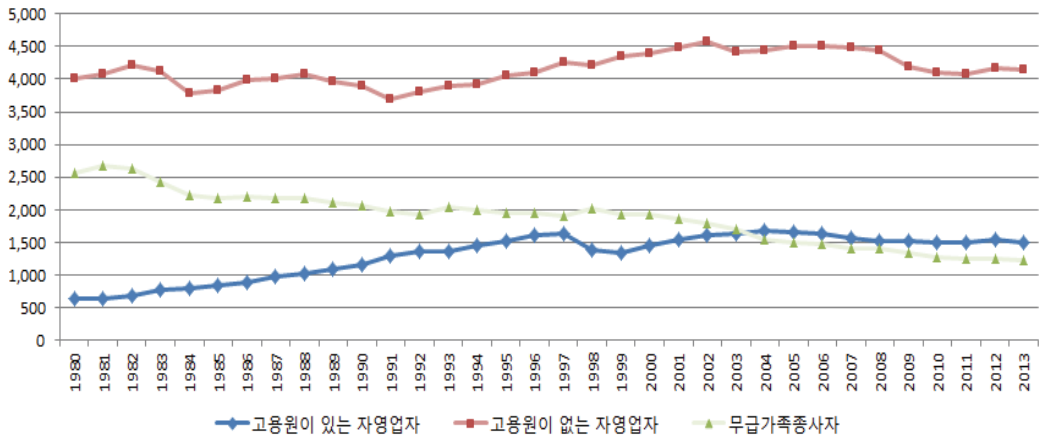
◎ 비임금근로자 규모와 장기적인 추이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는 장기적으로 볼 때 400만 명 수준에서 등락하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450만 명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0년 이후 400만 명 남짓한 수준으로 크게 감소한 후 2012년에 다소 회복세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외환위기 이전까지 지속적이며 강한 상승 추세를 보였으나, 외환위기와 함께 크게 감소하였다가 이후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는데, 2005년을 정점으로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
- 무급가족종사자 수는 단기적인 일부 등락을 제외하면 지속적이며 강한 감소 추세
- 최근의 규모 변화에 초점을 맞추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큰 폭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반면, 고용원이 있는 경우 2005년부터 2010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 가능

[그림 14] 비임금근로자 규모와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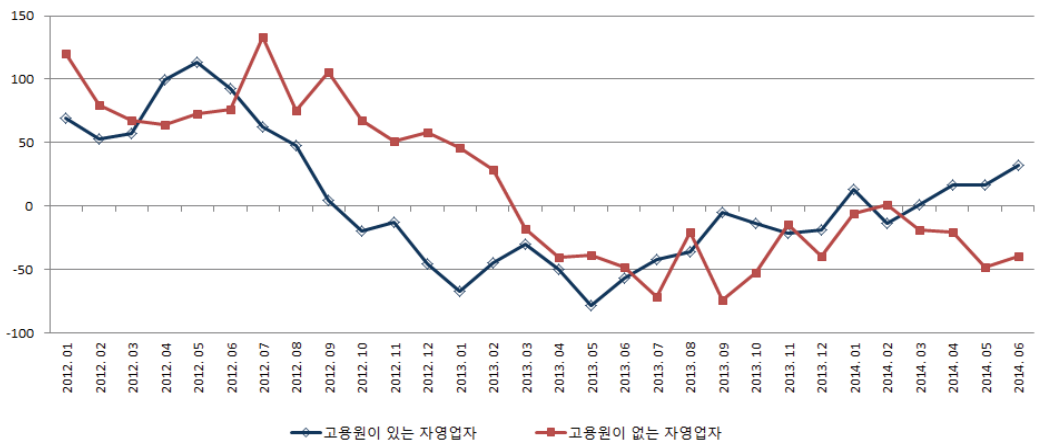
(단위: 천 명)



자료: 통계청, KOSIS.

[그림 15] 최근 전년동월대비 자영업자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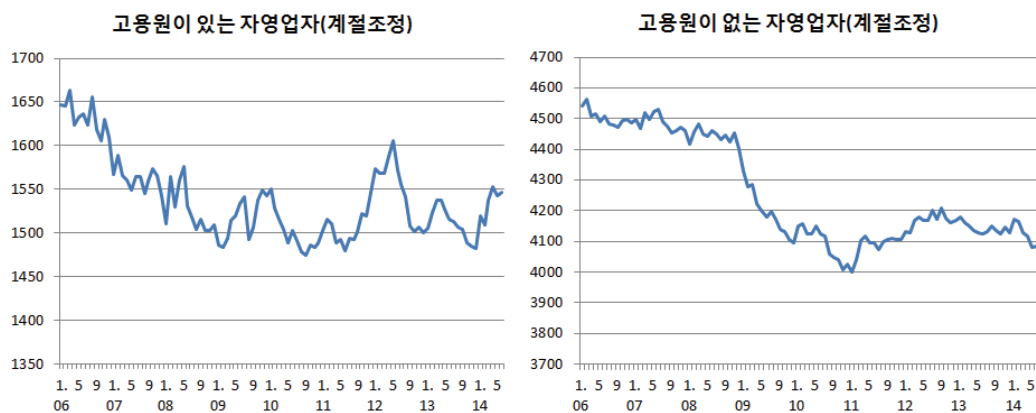
(단위: 천 명)



- ◎ 계절조정 수치로 최근 추이를 보면 감소폭이 크지 않았으나, 증가 추세도 보이지 않아 당분간 횡보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임

[그림 16] 고용원 여부별 자영업자 수 추이(계절조정)

(단위: 천 명)



자료 : 통계청, KOSIS.

- ◎ 2014년 6월의 전년동기대비 자영업자의 업종별 증감을 보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숙박 및 음식점업(30천 명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2천 명 ↑) 등에서 증가하였고, 부동산 및 임대업(11천 명 ↓) 등에서는 감소
 -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41천 명 ↓), 운수업(39천 명 ↓), 도·소매업(37천 명 ↓) 등에서 크게 감소

〈표 12〉 2014년 6월 자영업자의 업종별 증감

(단위: 천 명)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전년동월대비 증감	자영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증감	자영업자 수
농업, 임업 및 어업	-4	51	-24	961
제조업	-2	206	10	198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3	4	0	3
건설업	-3	165	12	239
도매 및 소매업	1	355	-37	844
운수업	2	35	-39	586
숙박 및 음식점업	30	310	7	269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6	26	17	44
금융 및 보험업	-8	7	7	24
부동산업 및 임대업	-11	30	3	99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	61	6	7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8	31	9	31
교육서비스업	3	79	14	28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2	89	-2	4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	31	10	11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5	83	-41	372
기타	-1	0	10	18
전 체	32	1,564	-39	4,16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참고〉 비경활 추이

- ◎ 앞서 [그림 5]에서 보았듯이 비경활인구는 몇 달째 크게 감소
 - 연로, 심신장애, 군입대 대기, 입시학원 통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활동상태에서 비경활인구 감소
 - 특히 통학에서 비경활인구 감소가 두드러짐

〈참고표 1〉 비경활인구 활동상태별 증감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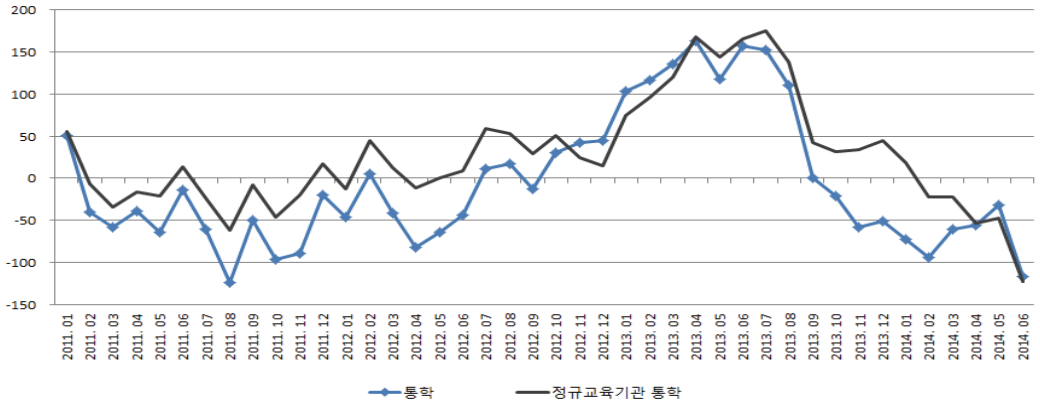
	2011	2012	2013	2012. 6	2013. 6	2014. 6	2014. 6 비경활 인구 수
육아	-5	-2	1	-13	31	-59	1,396
가사	101	123	-3	221	1	-64	5,701
정규교육기관 통학	-13	23	103	8	166	-123	3,999
입시학원 통학	2	-1	-24	-2	-35	25	85
취업을 위한 학원, 기관 통학	-40	-34	-2	-51	27	-19	195
취업준비	-13	22	15	23	8	-19	348
진학준비	-5	-31	-5	-37	-8	-25	85
연로	-45	148	54	180	-4	113	1,905
심신장애	-26	-22	11	-32	17	18	424
군입대 대기	0	3	1	-4	-3	22	72
결혼 준비	0	-1	4	3	4	-3	9
쉬었음	182	-53	-7	-49	-13	-1	1,368
기타	-16	-46	-9	-66	-6	-4	80
비경활 전체	112	128	141	182	184	-141	15,666
*취업준비	-53	-12	14	-27	35	-38	543
*통학	-50	-12	77	-44	157	-117	4,279

주: *취업준비는 취업준비와 취업을 위한 학원, 기관 통학의 합. *통학은 정규교육기관 통학, 입시학원 통학, 취업을 위한 학원, 기관 통학의 합.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참고 그림 1] 통학과 정규교육기관 통학 전년동월대비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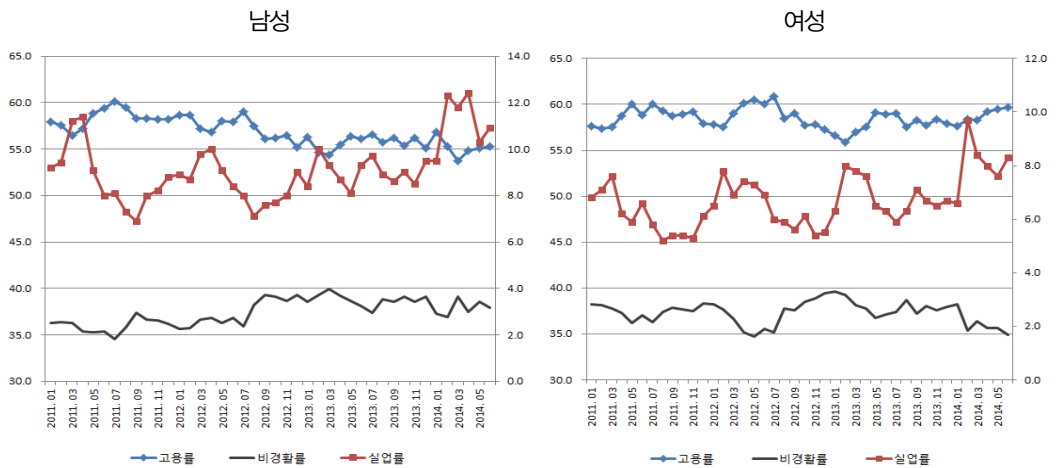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 비경황에서 통학이 크게 감소하는 것은 취업이나 실업의 형태로 노동시장 진입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음
 - 20대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보면, 비경황률은 감소하는 동시에 고용률과 실업률은 증가하였고, 이러한 경향은 여성이 더 강하게 나타남

[참고 그림 2] 20~29세 고용률, 실업률, 비경황률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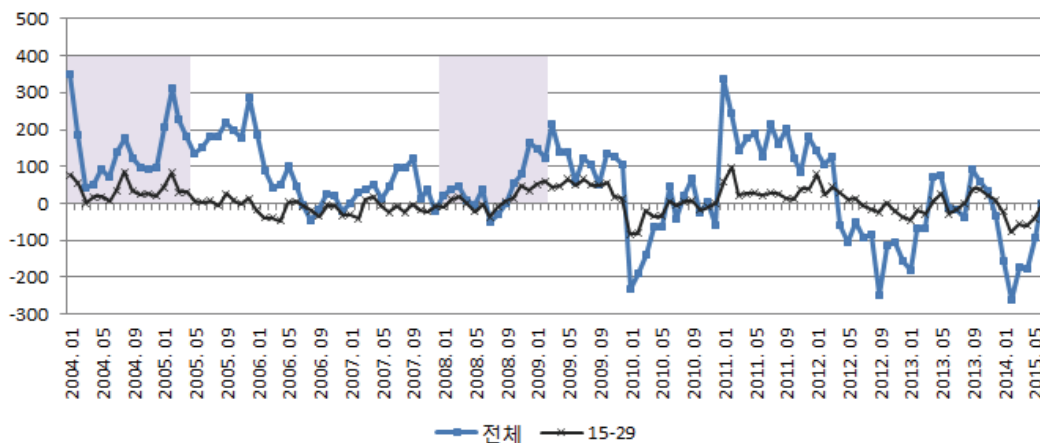
주: 그래프의 왼쪽 축은 고용률과 비경황률이고, 오른쪽 축은 실업률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쉬었음은 최근 6개월 연속 감소

- 2014년 2월 263천 명 감소로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3월 174천 명↓, 4월 176천 명↓, 5월 94천 명↓, 6월 1천 명↓로 감소폭이 빠르게 둔화
- 쉬었음 감소는 주로 20~40대 연령에서 나타났고, 50세 이상은 증가(50대 11천 명↑, 60세 이상 43천 명↑)

[참고 그림 3] 쉬었음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주 : 음영은 경기순환 기준순환일 기준 수축기.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4. 사업체 특성에 따른 취업자 변화

- ◎ 2014년 6월 취업자 증가 둔화(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398천 명 증가)는 제조업 고용증가폭 확대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 고용증가폭 둔화 심화에 기인
 - 제조업 취업자 수는 2014년 6월 현재 165천 명 증가하여 2013년 8월(5천 명 증가) 저점을 찍은 후 증가세를 유지(1분기 123천 명 → 2분기 136천 명)
 - 서비스업 고용은 2014년 6월 현재 전년동월대비 303천 명 증가하면서 2월(612천 명) 정점 이후 4개월 연속 증가폭 둔화 심화(특히 서비스업 부문 중 고용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내수에 의존하는 대표적인 산업인 도매 및 소매업 중심으로)
 - 도·소매업은 1~4월 평균 165천 명의 증가폭을 보이다가 5월(67천 명) → 6월(33천 명) 증가폭이 빠르게 둔화되었으며, 이는 4월 중 소비심리가 위축된 데 따른 것으로 보임
 - 한편 숙박 및 음식점업의 고용은 국제금융위기 때부터 감소세가 지속되다가 2012년 1월부터 증가세 유지. 2014년 6월 현재 129천 명 증가하여 최근 7개월 연속 10만 명 이상의 고용증가폭 기록
 - 장기적으로 증가 추세를 이어온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고용도 여전히 증가(2014년 6월 현재 148천 명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의 고용은 6월 현재 전월에 이어 8천 명 감소(이 중 임금근로자는 26천 명 감소, 비임금근로자는 18천 명 증가)
 - 지난해 고용감소세를 보였던 건설업은 2014년 들어 미약하게 증가세 유지(23천 명 ↑)
 - 고용증가폭이 둔화된 임시직은 사업시설관리(28천 명 ↓), 공공부문(28천 명 ↓),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10천 명 ↓)에서 감소
 - 4개월째 감소중인 일용직은 건설업(19천 명 ↓), 도·소매업(25천 명 ↓), 음식·숙박업(21천 명 ↓)을 중심으로 감소

〈표 13〉 산업별 고용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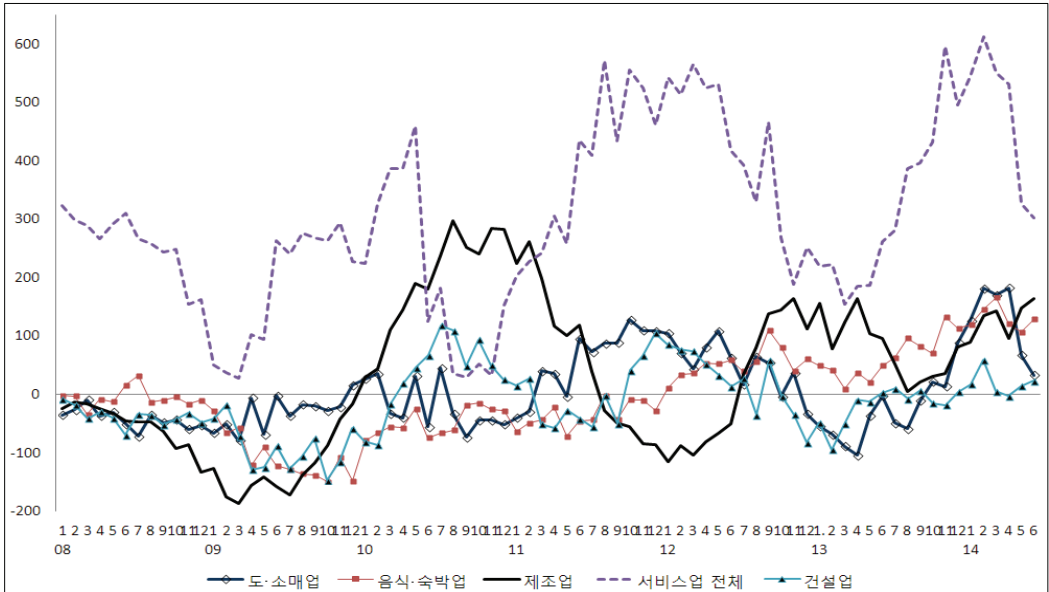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2011	2012	2013	2012. 6	2013. 6	2014. 6
취업자 전체	415	436	386	365	361	398
농업, 임업 및 어업	-25	-14	-8	-21	-19	-76
제조업	63	14	79	-51	96	165
서비스업	386	416	318	417	262	303
도매 및 소매업	58	51	-29	63	- 3	33
운수업	52	48	34	20	40	-7
숙박 및 음식점업	-36	53	64	59	50	129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5	-3	-8	13	3	36
금융 및 보험업	38	-4	22	1	39	-48
부동산업 및 임대업	-31	-0	-1	11	- 15	2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7	67	-6	78	- 35	18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64	30	57	12	54	-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9	-0	14	- 7	- 4	-23
교육서비스업	-113	58	4	73	- 17	4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58	88	155	91	140	14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7	-8	-17	- 13	- 36	-8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서비스업	45	25	26	10	38	-7
가구내 고용활동 등	3	13	5	9	15	-61
건설업	-2	22	-19	14	3	23
민간부문	424	436	372	372	365	421
공공부문	-9	0	14	-7	-4	-23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그림 17] 산업별 고용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 2014년 6월 현재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 모두 고용은 증가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고용증가폭이 크게 둔화
 - 2014년 6월 현재 중소기업의 고용은 증가세(296천 명↑)를 유지하고 있으나 증가폭은 2월 이후 4개월 연속으로 둔화
 - 중소기업 고용은 상용직 증가폭이 둔화되고 일용직 감소폭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임시직의 고용이 증가하면서 고용둔화폭 축소
 - 중소기업 상용직은 전년동월대비 340천 명 증가로 2014년 3월부터 고용증가폭이 둔화. 2014년 들어 중소기업 상용직은 남성과 30~40대 연령층에서의 고용증가폭이 크게 둔화. 산업별로는 금융 및 보험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감소
 - 중소기업 일용직의 고용감소는 주로 여성(69천 명↓)과 50대 연령층(51천 명↓)이 중심
 - 중소기업에서 신규채용은 6월 현재 3개월 연속 감소(137천 명↓)

〈표 14〉 사업체 규모별 고용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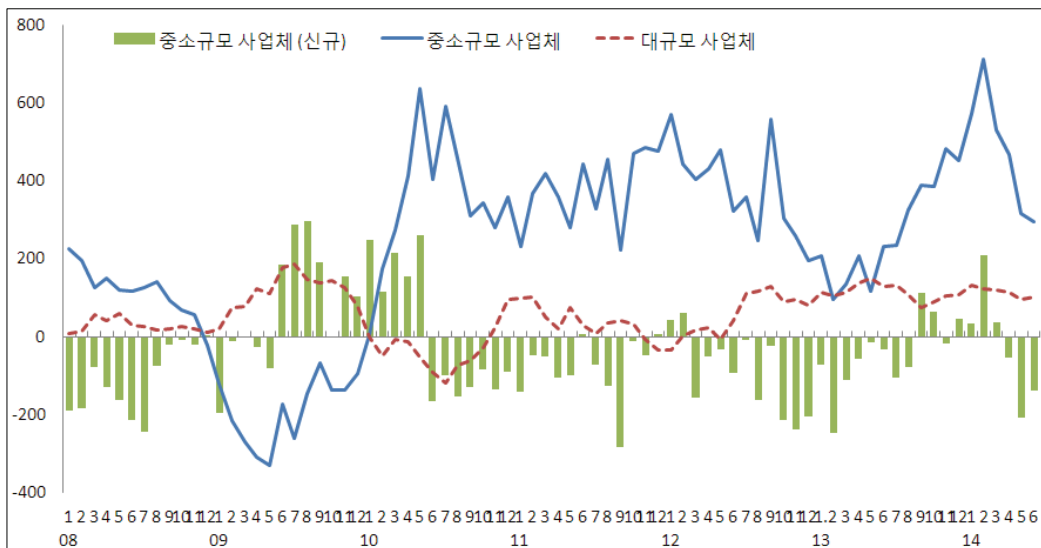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2011	2012	2013	2012. 6	2013. 6	2014. 6
취업자 전체	415	436	386	365	361	398
중소규모 사업체	378	381	272	324	232	296
도·소매업	57	58	-29	70	-1	17
음식·숙박업	-40	54	62	56	49	125
신규채용	-81	-90	-43	-94	-33	-137
(도·소매+음식·숙박업)	-14	-21	-3	-32	48	-29
(제조업)	-7	-19	-12	8	-18	-55
(예술, 스포츠, 여가)	1	0	-0	-2	0	-18
(교육서비스업)	-13	-1	-11	1	-25	-29
대규모 사업체	37	55	114	41	128	102
신규채용	0	-18	5	-32	12	-1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그림 18] 사업체 규모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표 15〉 중소기업 특징별 취업자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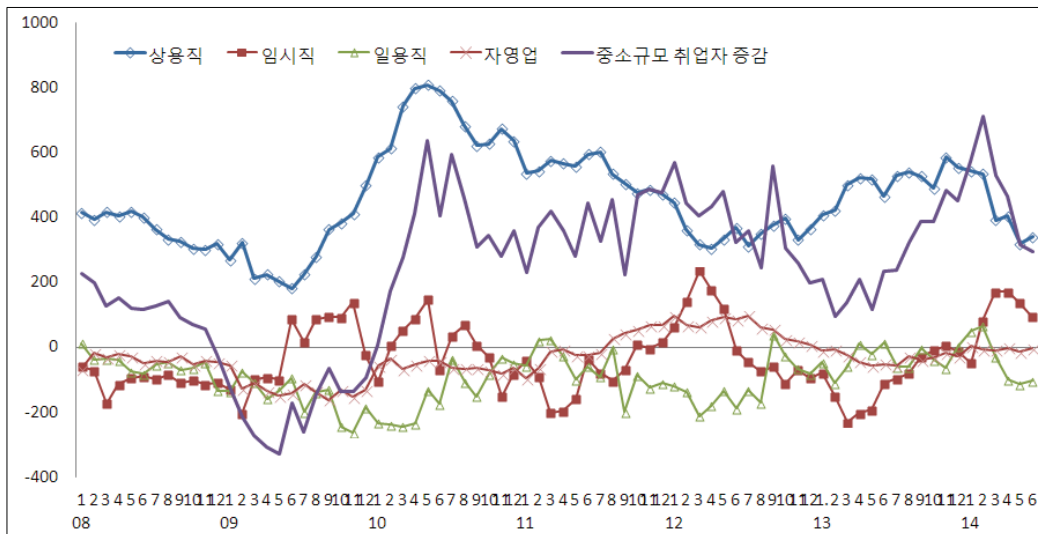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2011	2012	2013	2012. 6	2013. 6	2014. 6
중소규모 취업자 전체		378	381	272	324	232	296
지위별	상용직	537	355	505	369	466	340
	임시직	-80	22	-100	-10	-111	93
	일용직	-68	-117	-37	-189	14	-105
	자영업	1	124	-67	169	-104	-7
연령별	20대 후반	-13	84	27	85	52	33
	40대 초반	48	22	16	7	28	-57
	50대 초반	132	96	69	79	84	-23
산업별	제조업	76	-41	39	-82	50	93
	서비스업	329	417	256	410	190	269
	도·소매업	57	58	-29	70	-1	17
	음식·숙박업	-40	54	62	56	49	125
	금융·보험업	34	9	21	17	36	-49
	사업시설관리	63	41	55	27	45	5
	보건업 및 사회복지	151	89	129	93	112	136
	예술, 스포츠, 여가	36	-5	-19	-10	-38	-4
	건설업	2	18	-20	9	5	26
상용직 특징별	소 계	537	355	505	369	466	340
	남성	238	116	254	113	264	85
	30대	159	27	74	12	77	-37
	제조업	117	32	115	22	122	144
	도·소매업	106	55	64	47	73	49
	금융·보험업	22	7	21	9	32	-39
	사업시설관리	43	40	50	51	33	5
	보건업 및 사회복지	129	109	105	127	90	78
일용직 특징별	소 계	-68	-117	-37	-189	14	-105
	여성	-41	-71	-36	-101	-17	-69
	50대 연령층	-3	-13	22	-30	49	-51
	제조업	-4	-27	-19	-26	-17	-25
	건설업	-28	-12	-0	-36	17	-17
	도·소매업	2	-15	-12	-9	-6	-22
	음식·숙박업	-8	-28	13	-40	17	-22
	예술, 스포츠, 여가	-6	0	-1	-6	-7	-1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그림 19] 중소기업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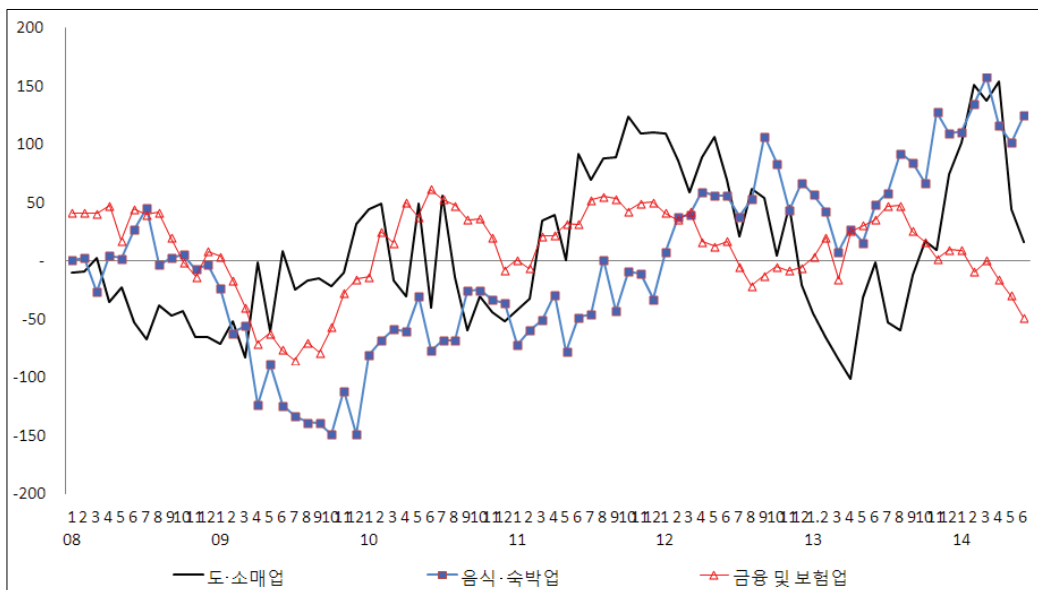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그림 20] 중소기업 산업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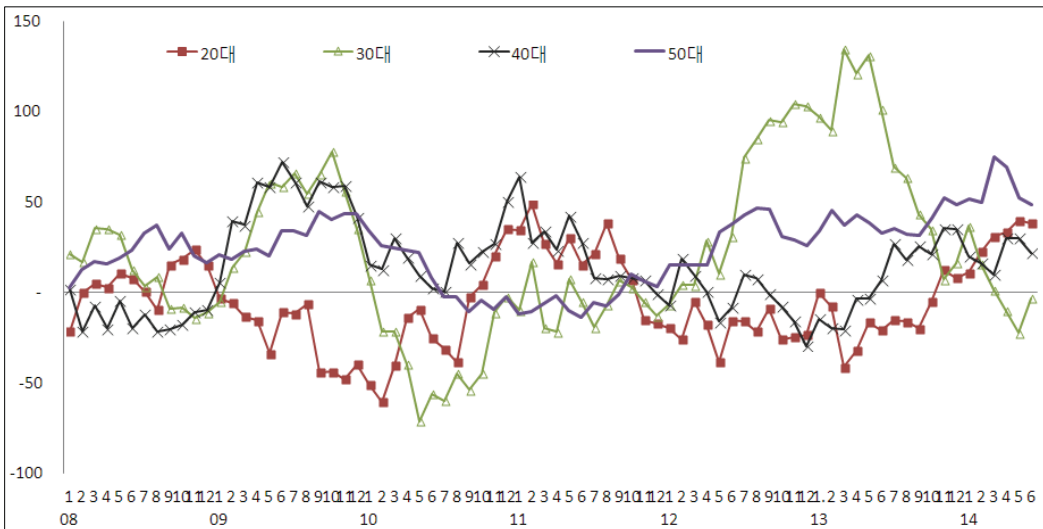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 한편 대규모 사업체의 고용은 6월 현재 전년동월대비 102천 명 증가하면서 고용증가폭 소폭 둔화. 이는 대규모 사업체의 임시·일용직 감소에 기인(20천 명 ↓)
- 대규모 사업체 30대 연령층의 고용은 2013년 5월 이후 급격히 둔화되고 있으며, 지난달에 이어 감소(3천 명 ↓)
- 대규모 사업체에서 신규채용은 4개월 연속 감소(15천 명 ↓)

[그림 21] 대규모 사업체 연령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 ◎ 직종별로는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의 고용이 장기적으로 증가 추세인 가운데 서비스종사자 고용이 큰 폭으로 증가
 -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는 전년동월대비 137천 명(1~5월 평균 204천 명 ↑) 증가, 서비스종사자는 전년동월대비 102천 명 증가
 - 농림어업숙련종사자의 고용은 6월 현재 74천 명 감소하는 등 4개월 연속 감소세

〈표 16〉 직종별 고용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2011	2012	2013	2012. 6	2013. 6	2014. 6
취업자 전체	415	436	386	365	361	398
관리자	-47	-51	-61	-68	-84	8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114	106	175	108	161	137
여성	75	68	130	63	111	81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02	79	112	91	98	68
교육서비스업	-108	30	18	52	-2	28
사무종사자	252	108	118	120	112	93
서비스종사자	35	77	29	81	16	102
남성	14	34	23	44	-7	68
도·소매업	-1	2	4	4	4	-5
음식·숙박업	-51	30	48	29	41	77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8	3	12	-5	23	23
예술, 스포츠, 여가서비스업	24	-10	-18	-5	-35	-7
판매종사자	-39	114	23	146	51	4
남성	23	88	14	99	46	-43
도·소매업	-47	78	0	88	36	-31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12	29	-58	34	-58	6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69	99	135	64	129	103
단순노무종사자	42	-52	23	-135	48	2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 ◎ 임금근로자의 신규채용은 2개월 연속으로 모든 종사상 지위에서 감소(특히 임시직의 경우 전월보다 감소폭이 확대(53천 명 ↓))
- 임금근로자의 신규채용은 2013년 12월~2014년 3월 중 평균 92천 명 증가하였다가 4~6월 평균 158천 명의 감소세가 지속됨
 - 60세 이상의 신규채용은 증가하는 가운데 20~50대의 경우 4개월 연속으로 감소세가 지속
 - 한편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2천 명 ↑), 협회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12천 명 ↑), 운수업(9천 명 ↑), 음식·숙박업(5천 명 ↑), 사업시설관리서비스업(5천 명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천 명 ↑), 건설업(1천 명 ↑),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1천 명 ↑) 이외 업종에서 신규채용 감소

〈표 17〉 임금근로자의 신규채용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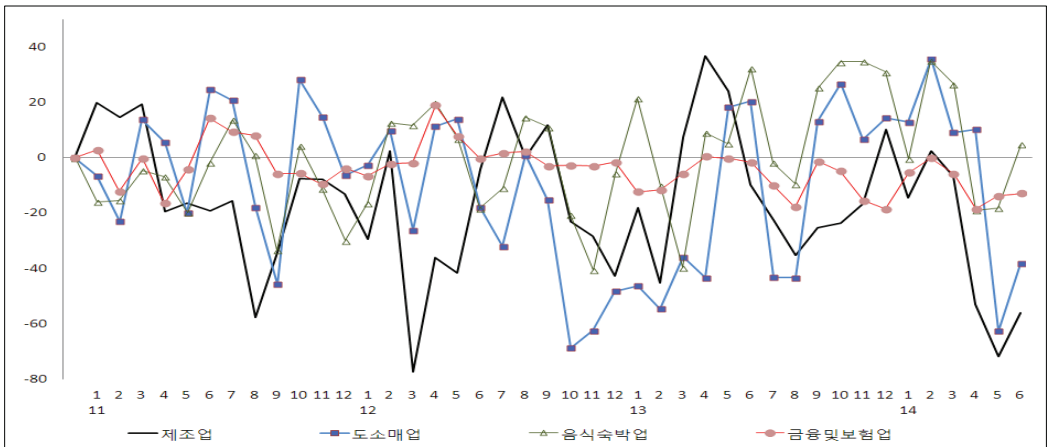
(단위: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2011	2012	2013	2012. 6	2013. 6	2014. 6	
근로자 전체		426	315	483	212	497	430	
근속 기간별	3개월 미만	-81	-108	-37	-126	-21	-153	
	3~12개월 미만	-48	17	-75	14	-114	46	
	12개월 이상	556	406	595	324	631	536	
신규 채용	지위별	상용	29	-5	-0	48	-31	-20
		임시	-83	-56	-48	-103	-38	-53
		일용	-27	-47	11	-71	48	-80
	산업별	제조업	-11	-21	-10	-4	-10	-56
		서비스업	-44	-62	-39	-107	-17	-84
		도·소매업	-1	-20	-14	-18	20	-38
		음식·숙박업	-10	-3	11	-18	32	5
		보건업 및 사회복지	13	-4	-2	0	-20	12
		예술, 스포츠, 여가	1	-1	1	-2	2	-20
		건설업	-28	-12	21	3	10	1
	규모별	중소규모	-81	-90	-43	-94	-33	-137
		대규모	0	-18	5	-32	12	-15

주: 신규채용은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로 간주.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그림 22] 산업별 신규채용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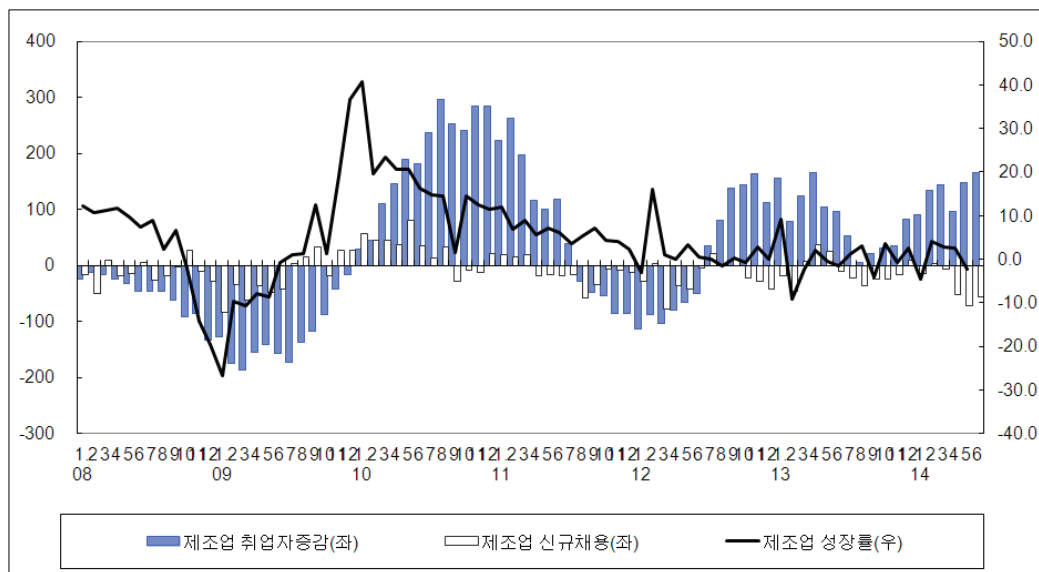
주: 신규채용은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로 간주.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1) 제조업 부문 : 생산·내수 감소, 고용증가세는 지속

- ◎ 제조업 부문의 생산증가율은 2014년 5월 현재 전년동월대비 2.3% 감소(내수 0.1% 감소, 수출 3.3% 감소)
 - 제조업 고용은 2014년 5월 현재 전년동월대비 148천 명 증가(2014년 6월 현재 165천 명 ↑), 그러나 신규채용은 56천 명 감소하여 4개월 연속 감소
- ◎ 제조업 고용은 2012년 7월부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2014년 1~6월 평균 130천 명 증가(6월 현재 고용증가폭 확대)
 - 제조업은 상용직과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를 제외한 다른 종사상 지위에서 모두 고용이 감소. 제조업 임시직은 전년동월대비 30천 명 감소(5월 22천 명 감소)

[그림 23] 제조업 고용증감 및 생산증가율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표 18〉 제조업 취업자 고용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2011	2012	2013	2012. 6	2013. 6	2014. 6
제조업 취업자 전체		63	14	79	-51	96	165
(신규채용)		-11	-21	-10	-4	-10	-56
지위별	상용직	110	84	152	51	163	223
	임시직	-37	-18	-14	-46	3	-30
	일용직	-4	-26	-19	-25	-15	-28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2	-7	-16	3	-27	-2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3	-6	-12	-13	-20	10
	무급가족종사자	-5	-12	-12	-21	-9	-9
성별	남성	26	19	92	-24	104	111
	여성	37	-5	-12	-27	-9	54
연령별	40대	20	-3	-43	0	-31	29
	50대	46	49	60	49	37	104
규모별	중소규모	76	-41	39	-82	50	93
	대규모	-13	55	41	31	46	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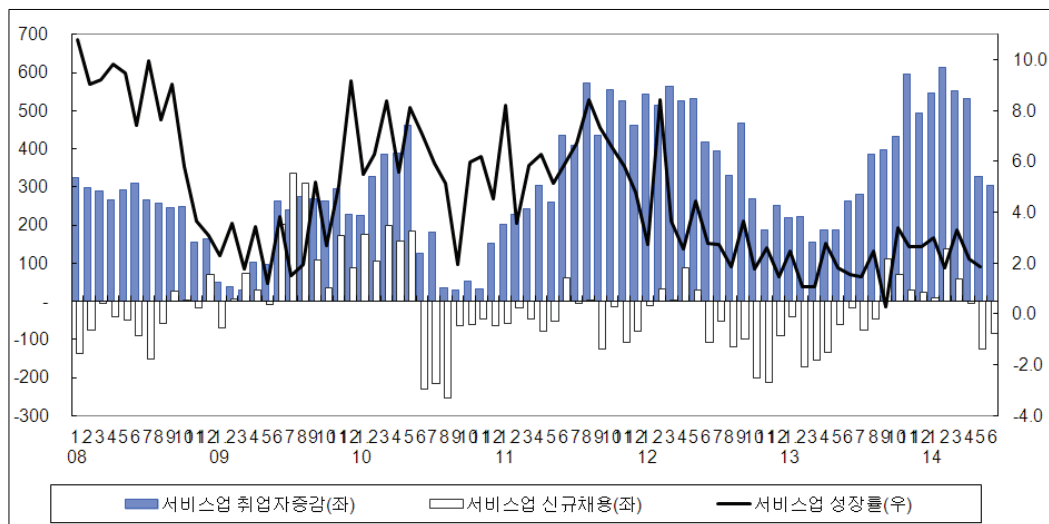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2) 서비스업 부문 : 생산과 고용증가

- ◎ 서비스업 부문의 생산은 2014년 5월 현재 전년동월대비 1.9% 증가
 - 서비스업 고용은 2014년 5월 현재 전년동월대비 327천 명 증가(2014년 6월 현재 303천 명 ↑)로 증가폭 둔화

[그림 24] 서비스업 취업자 증감 및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추이

(단위 : 천 명, %,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 ◎ 2014년 6월 서비스업 고용증가는 전월에 이어 상용직과 더불어 임시직, 자영업(고용원이 있는)에 기인
 - 서비스업 상용직의 고용증가폭은 크게 둔화된 반면, 임시직은 전년동월대비 102천 명 증가. 서비스업 임시직은 2012년 7월부터 감소세가 시작되어 2013년 한 해 동안 65천 명 감소. 그러나 2013년 10월부터 증가세로 전환하여 최근 고용증가세를 주도
 - 서비스업 상용직의 둔화는 주로 30·40대 남성(64천 명 ↓)을 중심으로 나타났으며, 산업별로는 금융·보험업, 공공행정,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 업종에서 감소
 - 서비스업 임시직은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한 반면, 예술, 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공공행정 등의 부문에서는 감소
 - 서비스업의 고용증가폭이 크게 둔화되면서 신규채용 또한 큰 폭으로 둔화(84천 명 ↓, 전월은 126천 명 ↓) 상용·임시·일용 모두 신규채용 감소

- 자영업자는 6월 현재 전년동월대비 5천 명 증가. 그러나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지난달부터 2개월 연속 감소(16천 명 ↓ → 37천 명 ↓)
- 연령별로는 20대(9천 명 ↓)와 30대(20천 명 ↓)에서 고용감소
- 서비스업 고용을 세부 산업별로 보면, 도매 및 소매업(33명 ↑), 숙박 및 음식점업(129천 명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48천 명 ↑), 교육서비스업(46천 명 ↑)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한 반면, 금융 및 보험업(6월 48천 명 ↓, 5월 29천 명 ↓), 사업시설관리서비스업(2천 명 ↓), 예술, 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업(8천 명 ↓) 등을 중심으로 감소

〈표 19〉 서비스업 특징별 고용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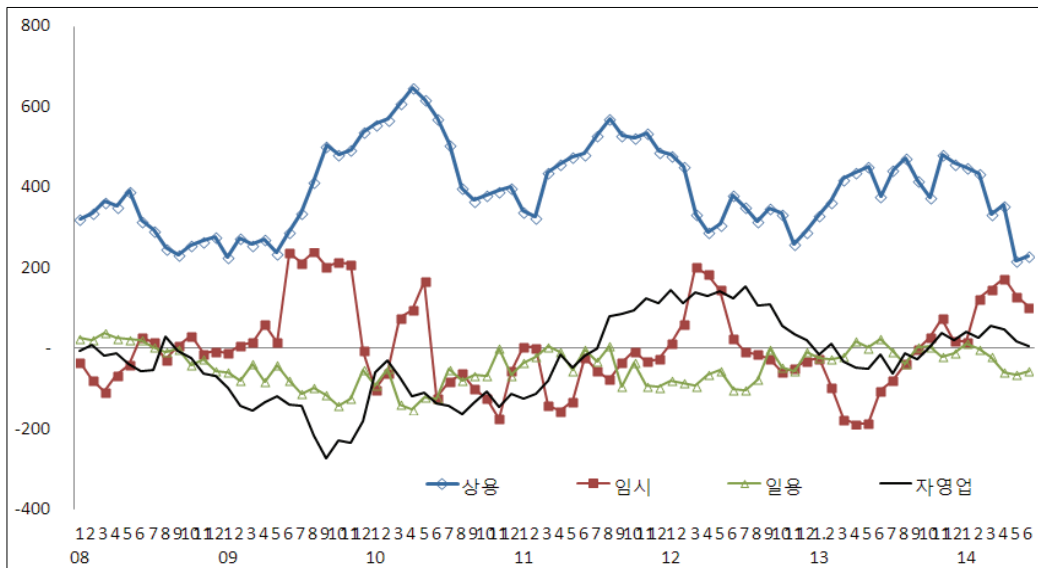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2011	2012	2013	2012. 6	2013. 6	2014. 6
서비스업 취업자 전체		386	416	318	417	262	304
(신규채용)		-44	-62	-39	-107	-17	-84
지위별	상용직	475	345	419	380	378	230
	임시직	-57	36	-65	24	-106	102
	일용직	-39	-65	-9	-103	23	-56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6	52	-12	83	-19	42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2	53	-4	40	2	-37
	무급가족종사자	-0	-6	-11	-8	-15	23
성별	남성	236	175	93	176	77	123
	여성	150	241	225	240	185	181
연령별	20·30대	-19	4	-83	36	-102	-30
	50세 이상	327	376	316	356	312	294
산업별	도·소매업	58	51	-29	63	-3	33
	음식·숙박업	-36	53	64	59	50	129
	보건업 및 사회복지	158	88	155	91	140	148
	교육서비스업	-113	58	4	73	-17	46
	금융·보험업	38	-4	22	2	39	-48
	사업시설관리	64	30	57	12	54	-2
	예술, 스포츠, 여가	37	-8	-17	-13	-36	-8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그림 25] 서비스업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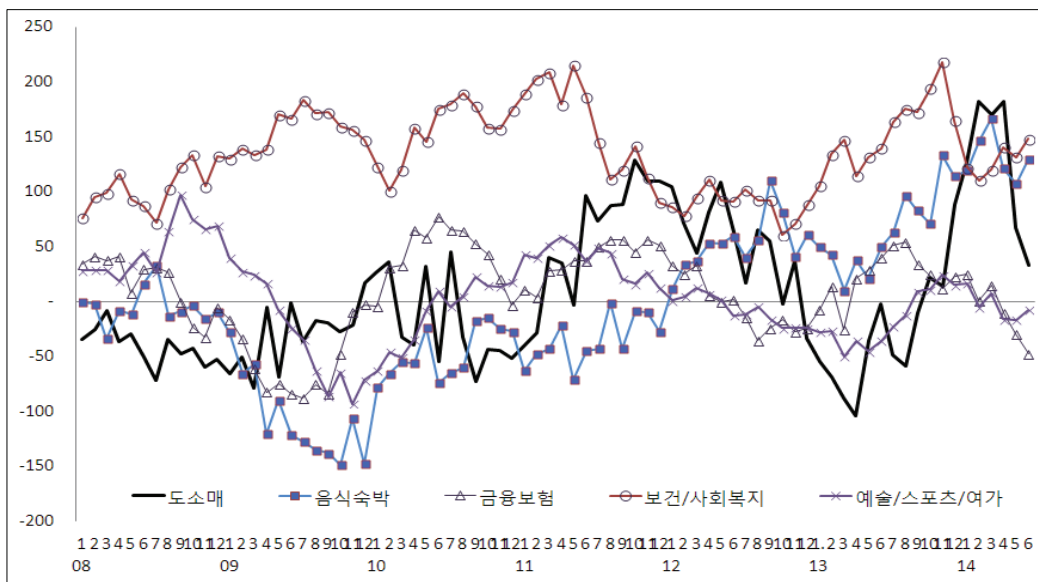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그림 26] 서비스업 업종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표 20〉 서비스업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2011	2012	2013	2012. 6	2013. 6	2014. 6
상용직	전 체	475	345	419	380	378	230
	남성	212	126	159	156	159	37
	여성	263	220	261	224	219	193
	30대	161	98	51	100	57	-36
	50세 이상	130	153	154	183	141	170
	도·소매업	107	51	68	43	74	64
	음식·숙박업	25	5	33	2	26	24
	보건업 및 사회복지	130	112	132	131	117	91
	금융·보험업	23	-4	25	-6	41	-40
	예술, 스포츠, 여가	4	3	4	5	1	-5
일용직	전 체	-39	-65	-9	-103	23	-56
	도·소매업	-0	-14	-13	-6	-6	-25
	음식·숙박업	-8	-28	13	-41	17	-21
	예술, 스포츠, 여가	-6	-0	-1	-6	-7	-11
임시직	전 체	-57	36	-65	24	-106	102
	도·소매업	-19	-10	-45	-10	-26	18
	음식·숙박업	-58	39	36	36	38	77
	교육서비스업	-32	9	-38	35	-77	31
	보건업 및 사회복지	29	-16	7	-30	5	46
	예술, 스포츠, 여가	13	-2	-3	3	-14	-1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 서비스업 고용을 산업별로 보면, 장기적으로 증가 추세인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과 더불어 내수에 기반한 대표적인 업종인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에 집중

- 2014년 6월 현재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고용은 전년동월대비 148천 명 증가함으로써 2013년에 이어 서비스업 고용증가세를 견인. 신규채용 또한 전년동월대비 12천 명 증가하는 등 증가세 유지
- 도·소매업은 2013년 10월부터 서비스업의 고용증가를 견인해 왔으나 5월(67천 명)에 이어 6월(33천 명) 증가폭이 빠르게 둔화되고 있으며, 이는 신규채용 감소(5월 63천 명↓, 6월 38천 명↓)에 기인

- 도·소매업 신규채용은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세. 2013년 말~2014년 1분기에 증가세로 돌아섰다가 5월부터 다시 감소 중
- 숙박 및 음식점업의 고용은 2013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10만 명 이상 증가 중(6월 129천 명 ↑). 6월에는 신규채용도 5천 명 증가
- 한편 예술, 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업은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고용이 감소한 반면, 비임금근로자는 증가(18천 명 ↑)

〈표 21〉 서비스업 세부 산업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2011	2012	2013	2012. 6	2013. 6	2014. 6
도·소매업	전 체	58	51	-29	63	-3	33
	상용직	107	51	68	43	74	64
	임시직	-19	-10	-45	-10	-26	18
	일용직	-0	-14	-13	-6	-6	-25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10	5	-20	24	-26	1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32	23	-15	21	-17	-37
	무급가족종사자	-8	-5	-5	-8	-3	12
	남성	82	18	-46	26	-27	22
	여성	-24	33	17	37	24	11
음식·숙박업	전 체	-36	53	64	59	50	129
	상용직	25	5	33	2	26	24
	임시직	-58	39	36	36	38	77
	일용직	-8	-28	13	-41	17	-21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9	25	-15	33	-20	30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3	2	-5	8	-11	7
	무급가족종사자	-2	10	2	20	-2	13
	남성	-9	28	35	30	19	107
	여성	-26	25	29	29	31	2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전 체	158	88	155	91	139	148
	상용직	130	112	132	131	117	91
	임시직	29	-16	7	-30	5	46
	일용직	-4	-7	0	-6	2	6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0	0	16	-3	16	12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0	-2	-1	-1	-1	-2
	무급가족종사자	3	-0	1	-1	0	-4
	남성	19	13	33	18	23	48
	여성	140	75	122	73	116	100
예술, 스포츠, 여가	전 체	37	-8	-17	-13	-36	-8
	상용직	4	3	4	5	1	-5
	임시직	13	-2	-3	3	-14	-10
	일용직	-6	-0	-1	-6	-7	-11
	비임금	26	-9	-17	-14	-17	1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3) 건설업 부문 : 생산감소와 고용증가

- 건설업의 2014년 5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8% 감소. 6월 현재 고용은 상용직과 임시직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23천 명 증가. 일용직과 자영업자는 감소
- 주로 중소기업에서 고용이 증가한 반면, 대규모 사업체에서는 고용이 감소 (3천 명 ↓)
- 건설업에서 신규채용은 활발하지 않았으나, 상용직(8천 명 ↑)과 임시직(6천 명 ↑)의 증가와 일용직 감소(12천 명 ↓)가 혼합된 결과

〈표 22〉 건설업 특징별 취업자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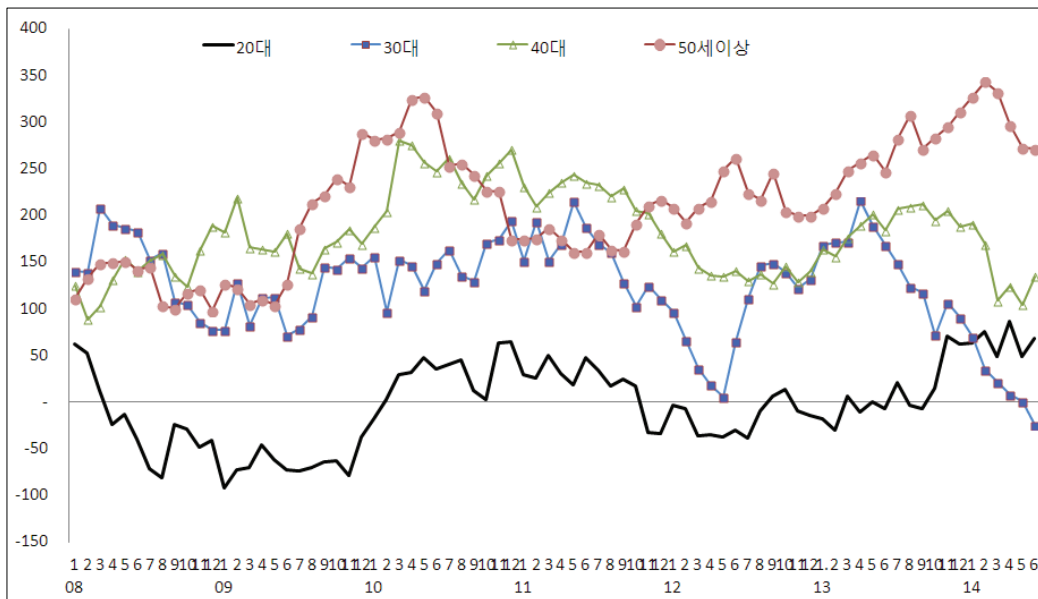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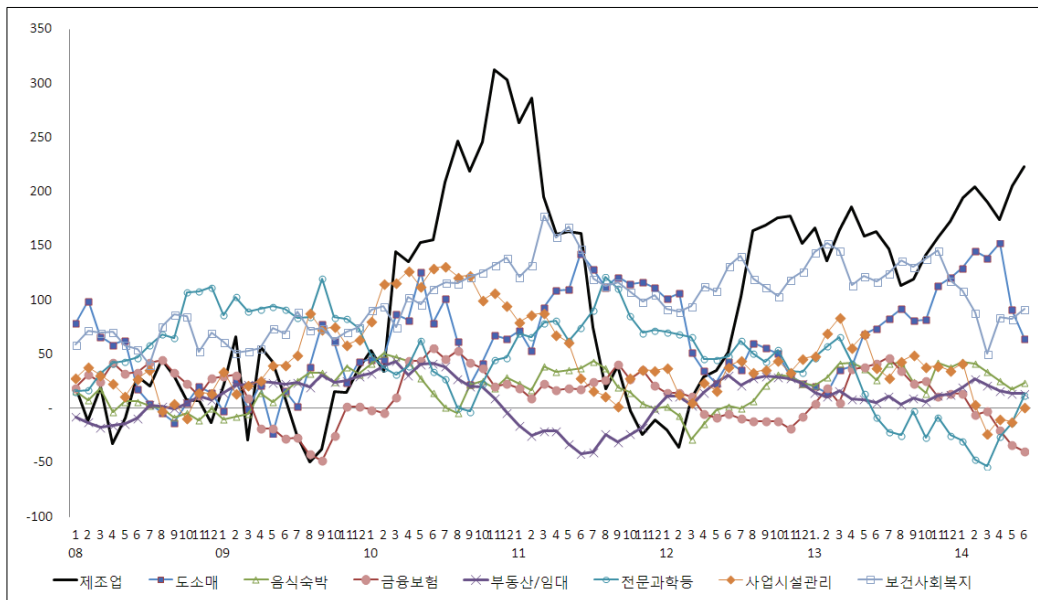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2011	2012	2013	2012. 6	2013. 6	2014. 6
건설업 취업자 전체		-2	22	-19	14	3	23
(신규채용)		-28	-12	21	3	10	1
지위별	상용직	-7	11	24	11	29	17
	임시직	20	-18	-16	-17	-11	14
	일용직	-28	-12	0	-35	17	-19
	비임금	12	41	-27	55	-33	11
성별	여성	-10	-9	-7	-4	-12	12
규모별	중소규모	2	18	-20	9	5	26
	대규모	-5	4	1	4	-2	-3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부도 1] 상용직 산업별·연령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5. 지역별 고용상황

◎ 고용률 등 취업활동은 지역별 편차가 있음

- 광역시도의 2014년 6월 고용률은 제주도(65.8%), 충청남도(64.5%), 경상북도(64.2%)가 높고, 부산(57.0%), 울산(58.0%), 대구(58.6%)가 낮게 나타남
 - 거주지 기준 취업자 수는 경기도(6,289천 명), 서울(5,137천 명), 부산(1,687천 명) 순으로 많고, 제주도(313천 명), 울산(547천 명), 강원도(744천 명) 순으로 적게 나타남
 - 광역시도의 2014년 5월 실업률은 인천(4.5%), 서울(4.4%), 부산(4.0%) 순으로 높고, 전라북도(2.5%), 제주도(2.6%), 경상남도(2.6%) 순으로 낮게 나타남
- ※ 전년동월과 비교하여 고용률이 높게 상승한 곳은 광주(2.4%), 대전(1.7%), 충청북도(1.4%), 경기도(1.3%) 순으로 나타났으며, 하락한 곳은 울산(-1.8%), 경상남도(-1.5%), 전라남도(-1.3%) 순으로 나타남

〈표 23〉 지역별 고용지표(2014년 6월 기준)

(단위: %, %p, 천 명)

	고용률		취업자 수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전년동월대비		전년동월대비		전년동월대비
전 체	60.9	0.4	25,875	397	63.1	0.6	3.5	0.4
서울특별시	60.3	0.1	5,137	-4	63.1	0.4	4.4	0.5
부산광역시	57.0	0.5	1,687	24	59.4	0.8	4.0	0.3
대구광역시	58.6	0.6	1,219	18	60.9	0.9	3.8	0.5
인천광역시	61.9	-0.1	1,489	25	64.9	0.6	4.5	1.0
광주광역시	59.4	2.4	746	38	61.4	2.7	3.1	0.1
대전광역시	59.9	1.7	771	29	62.1	2.1	3.5	0.4
울산광역시	58.0	-1.8	547	-8	59.8	-0.8	3.0	1.7
경기도	61.9	1.3	6,289	245	64.0	1.4	3.4	0.3
강원도	59.1	0.9	744	18	61.0	1.4	3.1	0.7
충청북도	64.0	1.4	838	27	66.1	2.5	3.1	1.4
충청남도	64.5	-0.9	1,194	8	66.6	-0.8	3.2	0.2
전라북도	59.2	-0.7	897	-7	60.7	-0.8	2.5	0.0
전라남도	61.8	-1.3	919	-17	63.6	-0.5	2.9	1.3
경상북도	64.2	0.5	1,451	22	66.1	0.5	2.8	-0.2
경상남도	59.9	-1.5	1,635	-25	61.4	-1.4	2.6	0.3
제주도	65.8	-0.7	313	6	67.5	-0.2	2.6	0.9

자료 : 통계청 KOSIS(경제활동인구조사).

◎ 주요 지역 고용동향

○ 광주광역시

- 2014년 6월 광주광역시 고용률은 59.4%로 전년동월대비 2.4%p 상승
- 산업별로 보면, 농림어업(3천 명), 광공업(5천 명), 건설업(7천 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9천 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8천 명), 전기·운수·통신·금융업(5천 명)에서 모두 증가함
- 직업별로 보면, 전문·기술·행정관리직(3천 명), 사무종사자(22천 명), 서비스·판매종사자(9천 명), 농림어업숙련종사자(2천 명), 기능·기계조작 및 단순종사자(2천 명)에서 모두 증가함

-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는 55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5천 명 증가하였으며, 이 가운데 전년동월대비 상용근로자는 28천 명, 일용근로자는 10천 명 증가하였고, 임시근로자는 2천 명 감소하였음

○ 대전광역시

- 2014년 6월 대전광역시 고용률은 59.9%로 전년동월대비 1.7%p 상승
- 산업별로 보면, 광공업(4천 명), 건설업(4천 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10천 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2천 명)에서 증가함
- 직업별로 보면, 전문·기술·행정관리직(10천 명) 사무종사자(2천 명), 서비스·판매 종사자(7천 명), 기능·기계조작 및 단순종사자(11천 명)에서 증가하였고, 농림어업 숙련종사자(-1천 명)에서 감소하였음
-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는 590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7천 명 증가하였으며, 이 가운데 전년동월대비 상용근로자는 12천 명, 임시근로자는 1천 명, 일용근로자는 4천 명 모두 증가하였음

〈표 24〉 주요 지역 취업자 수 및 변화 :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2014년 6월 기준)

(단위 : 천 명, %)

		2013. 6	2014. 5	2014. 6	전년동월대비		
					증감 수	증감률*	
광주광역시	산업별	농림어업	23	27	26	3	13.3
		광공업	103	107	108	5	5.1
		제조업	103	107	106	4	3.7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582	614	612	29	5.0
		건설업	67	74	75	7	10.9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64	171	173	9	5.6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275	287	283	8	2.9
		전기·운수·통신·금융업	76	83	81	5	6.3
	직업별	전문·기술·행정관리직	158	162	161	3	1.8
		사무직	114	136	136	22	19.5
		서비스·판매직	178	186	187	9	5.0
		농림어업직	21	24	23	2	10.0
	종사상지위별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직	238	241	240	2	0.7
		비임금근로자	191	195	193	2	1.0
		자영업주	160	161	159	-1	-0.5
		무급가족종사자	32	34	34	3	8.9
		임금근로자	517	554	552	35	6.8
		상용	340	367	368	28	8.1
		임시	139	139	137	-2	-1.5
		일용	38	47	48	10	26.1
	대전광역시	산업별	농림어업	10	11	10	0
광공업			77	81	81	4	5.4
제조업			77	81	81	4	5.4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655	669	680	25	3.9
건설업			63	64	67	4	6.2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67	176	177	10	5.9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340	345	352	12	3.4
전기·운수·통신·금융업			84	84	84	0	-0.2
직업별		전문·기술·행정관리직	188	193	198	10	5.4
		사무직	124	125	126	2	1.8
		서비스·판매직	175	184	182	7	3.9
		농림어업직	10	11	9	-1	-10.1
종사상지위별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직	245	249	256	11	4.6
		비임금근로자	169	177	182	12	7.2
		자영업주	145	153	156	11	7.30
		무급가족종사자	24	25	26	2	6.3
		임금근로자	573	585	590	17	3.0
		상용	371	378	383	12	3.2
		임시	143	143	144	1	0.8
		일용	58	64	62	4	6.9

주 : *증감률은 취업자 증가율임.

자료 : 호남지방통계청(2014. 7), 『2014년 6월 광주전남 고용동향』; 충청지방통계청(2014. 7), 『2014년 6월 대전, 충청지역 고용동향』.

○ 울산광역시

- 2014년 6월 울산광역시 고용률은 58.0%로 전년동월대비 1.8%p 하락
- 산업별로 보면, 광공업(11천 명)에서 증가하였고, 건설업(-2천 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6천 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9천 명), 전기·운수·통신·금융업(-2천 명)에서 감소하였음
- 직업별로 보면, 기능·기계조작 및 단순종사자(1천 명)에서 소폭 증가하였고, 전문·기술·행정관리직(-1천 명), 사무종사자(-4천 명), 서비스·판매종사자(-4천 명), 농림어업숙련종사자(-1천 명)에서 감소하였음
-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는 446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천 명 감소하였으며, 이 가운데 전년동월대비 상용근로자는 14천 명 증가하였고, 일용근로자는 10천 명, 임시근로자는 9천 명 감소하였음

○ 경상남도

- 2014년 6월 경상남도 고용률은 59.9%로 전년동월대비 1.5%p 하락
- 산업별로 보면, 농림어업(2천 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7천 명)에서 증가하였고, 광공업(-10천 명), 건설업(-14천 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3천 명), 전기·운수·통신·금융업(-7천 명)에서 감소하였음
- 직업별로 보면, 전문·기술·행정관리직(11천 명), 농림어업숙련종사자(1천 명)에서 증가하였고, 사무종사자(-14천 명), 서비스·판매종사자(-1천 명), 기능·기계조작 및 단순종사자(-22천 명)에서 감소하였음
-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는 1,093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천 명 감소하였으며, 이 가운데 전년동월대비 상용근로자는 6천 명, 임시근로자는 9천 명 증가하였고, 일용근로자는 20천 명 감소하였음

〈표 25〉 주요 지역 취업자 수 및 변화: 울산광역시, 경상남도(2014년 6월 기준)

(단위: 천 명, %)

		2013. 6	2014. 5	2014. 6	전년동월대비		
					증감 수	증감률*	
울산광역시	산업별	농림어업	7	8	7	0	4.3
		광공업	194	204	204	11	5.4
		제조업	194	203	204	10	5.2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355	335	336	-19	-5.2
		건설업	37	36	36	-2	-4.6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00	93	94	-6	-6.0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171	163	162	-9	-5.4
		전기·운수·통신·금융업	46	43	45	-2	-3.9
	직업별	전문·기술·행정관리직	101	99	100	-1	-0.7
		사무직	81	79	77	-4	-4.9
		서비스·판매직	100	97	96	-4	-3.8
		농림어업직	8	8	8	-1	-6.2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직	265	264	266	1	0.4
	종사상지위별	비임금근로자	104	102	101	-3	-2.9
		자영업주	89	88	87	-1	-1.5
		무급가족종사자	15	14	14	-2	-11.1
		임금근로자	451	444	446	-5	-1.1
		상용	319	332	333	14	4.5
		임시	105	94	96	-10	-9.4
		일용	27	18	18	-9	-34.3
경상남도	산업별	농림어업	194	190	196	2	1.1
		광공업	430	436	420	-10	-2.3
		제조업	428	436	420	-8	-1.9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1,036	1,024	1,018	-18	-1.7
		건설업	107	92	93	-14	-13.0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305	300	312	7	2.2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472	484	469	-3	-0.7
		전기·운수·통신·금융업	152	148	145	-7	-4.9
	직업별	전문·기술·행정관리직	269	279	281	11	4.1
		사무직	240	242	227	-14	-5.7
		서비스·판매직	330	326	329	-1	-0.4
		농림어업직	182	174	182	1	0.3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직	638	630	616	-22	-3.5
	종사상지위별	비임금근로자	562	527	542	-20	-3.5
		자영업주	436	414	424	-12	-2.6
		무급가족종사자	126	113	118	-8	-6.7
		임금근로자	1,098	1,123	1,093	-6	-0.5
		상용	777	806	783	6	0.8
		임시	229	244	238	9	3.8
		일용	91	73	71	-20	-22.0

주: *증감률은 취업자 증가율임.

자료: 동남지방통계청(2014. 7), 『2014년 6월 부산, 울산, 경남지역 고용동향』.